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1920년대 박원희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해방사상

2011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안 미 경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조규태

1920년대 박원희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해방사상

Park Won-hee's Women's Liberation Movement and
Thought in 1920s

2011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안 미 경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조규태

1920년대 박원희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해방사상

Park Won-hee's Women's Liberation Movement and
Thought in 1920s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안 미 경

안미경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1920년대 박원희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해방사상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안 미 경

본고(本稿)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 활동한 박원희(朴元熙)라는 인물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이다. 본고의 목적은 박원희가 전개한 여성해방운동과 그녀의 여성해방사상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식민지시기 여성문제를 민족해방 및 계급투쟁과 연계하여 해결하려고 한 여성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아울러 그녀가 속한 서울파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해방사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박원희는 1898년 충남 대전에서 태어나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의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 역할을 해 주던 오빠의 영향으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와 그 부설 사범과를 졸업할 수 있었다. 졸업 후 교사로 근무하였던 그녀는 3·1운동을 계기로 교사의 현실에 회의를 하였다. 1920년 교사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온 그녀는 오빠의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 활동을 보며 민족문제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김사국(金思國)을 만나게 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였고, 그와의 결혼 후 일본으로 건너가 양복직공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노동자의 처지를 인식하고, 여성 문제의 해결을 고민하였다. 그리고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여성해방사상을 수용하였다.

일본에서 귀국 한 박원희는 1923년 3월, ‘여성의 반역’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서울청년회에서 주최한 ‘전조선청년당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곧 수배 중이었던

남편이 있는 북간도로 이주하였다. 그녀는 간도 용정에 있는 동양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자립심과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주의사상을 전파하였다. 그러던 중 ‘동양학원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으나, 엘렌 케이의 저작을 번역하는 등 여성해방사상의 내면화에 힘썼다. 불행히도 이 때 그녀는 임신 중이었는데, 유산을 경험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가 이후 모성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

기소유예로 풀려나 서울로 돌아온 박원희는 지역 여성단체인 광진부인회(廣進婦人會)에 참여하면서 여성해방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녀는 1924년 5월에 조직된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의 발기인이자 집행위원으로, 경성여자청년회의 대표로, 1926년 중앙여자청년동맹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사회주의 여성운동계의 중진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여러 여성단체의 주역으로 강연과 언론 기고 등을 통하여 여성해방사상의 선전과 확산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민족협동전선의 요구에 따라 창립된 근우회와 신간회에 참여하여 민족해방운동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서울파의 비밀 사회주의 그룹인 고려공산동맹에 참여하고, 서울청년회의 집행위원의 일원으로 사회운동에도 참여하였다.

박원희의 여성해방사상은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이 처한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조선의 여성들이 어떠한 법률적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가정에서는 생산의 도구로 취급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에 대한 시설이 없고, 무산계급여성들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게다가 사회가 현모양처주의를 강조하여 여성들이 도구화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그녀는 여성들의 지위가 이렇게 된 원인을 재래의 봉건적 사회와 자본주의 제도로 인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모성보호와 남녀의 평등, 부인의 독립과 자유가 보장되고,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다.

박원희는 여성해방이 자본주의제도에서는 불가능하고, 이를 사회주의제도로 변화시킬 때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녀는 자본주의제도가 가져온 형식상의 자유는 인정하였지만, 무산계급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자본주의체제 하의 민족주의 여성운동으로는 여성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녀는 여성의 진정한 해방은 무산계급해방과 함께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민족해방

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원희는 1926년 남편 김사국과 사별하였으며, 1년 6개월 후인 1928년 1월 5일, 병고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어린 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죽는 순간 동지들에게 유지를 부탁할 정도로 그녀는 최후까지도 여성해방에 대한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주요어】 박원희, 여성해방사상, 여성해방운동, 조선여성동우회, 경성여자청년회, 모성보호, 서울청년회, 중앙여자청년동맹, 근우회,



HANSUNG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머 리 말	1
제 2 장	출생 및 성장과 여성해방사상의 형성	4
제 1 절	출생 및 성장	4
제 2 절	여성해방사상의 형성	10
제 3 장	박원희의 여성해방운동의 전개와 한계	16
제 1 절	여성단체의 조직과 여성해방운동의 전개	16
제 2 절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참여와 민족해방운동의 전개	26
제 4 장	박원희의 여성해방사상의 내용과 특징	33
제 1 절	여성의 현실과 그 원인에 대한 인식	33
제 2 절	여성해방의 목표와 방안	37
제 5 장	맺 음 말	45
【참고문헌】		48
ABSTRACT		53

【 표 목 차 】

【표 1】 박원희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성적표	7
【표 2】 박원희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성적표	8
【표 3】 조선여성동우회 발기인 명단	18
【표 4】 박원희의 경성여자청년회 언론 및 강연 활동	22
【표 5】 박원희의 근우회 강연 활동	25



제 1 장 머 리 말

일제강점기의 여성운동은 192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소위 문화통치의 공간 속에서 민족의 현실과 여성의 존재를 자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 근대적 여성들은 여성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여하고, 강연과 교육, 기고 등을 통하여 여성의 존재와 현실을 인식케 하고, 여성을 제도와 관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1920년대 여성운동의 주도 인물들은 그들의 이념과 가치와 운동방식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뉜다.¹⁾ 먼저 자유주의사상에 입각한 민족주의계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항일독립단체와 교육계몽단체, 종교단체, 경제단체 등에 참여하여 교육과 계몽을 통한 여성의 자각과 여성상의 정립, 여권의 신장 등을 위해 활동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여성으로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김마리아와 황애덕, 조선여자교육회의 차미리사,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의 김활란, 김필례, 유각경 등이 있었다. 이들은 기존의 체제 내에서 점진적으로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려 한 개량주의적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다. 여성의 참정권과 친권과 재산권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은 점에서 이들의 운동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23년 이후 여성운동의 주도권을 상실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사상에 입각하면서도 ‘신여성’ 담론 속에서 더욱 돋보였던 급진주의 여성들이 있었다.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윤심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유연애나 남녀평등,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같은 문제를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여성해방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민족문제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을 받으며, 비극적인 생을 살아야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사상을 통하여 여성문제의 해결을 주장했던 사회주의계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여성문제의 해결은 체제 내에서의 정신적 각성과 교육보다 정치체제와 사회구조의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들은 사회주의사상과 남녀평등사상을 결합하여 여성해방사상을 도출하였다. 이들은 ‘여권 신장’에서 더 나

1) 김경일, 「1920-30년대 한국의 신여성과 사회주의」,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5, pp. 250-251.

아가 ‘계급해방’을 전제로 한 ‘여성해방’을 추구하였으며, 이의 해결은 민족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 민족해방도 동시에 추구하였다. 정종명, 허정숙, 주세죽, 이현경, 박원희 등이 대표적인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에 속한다.

이처럼 식민지라는 조건 속에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여성해방 혹은 민족해방을 위하여 헌신한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선학들의 노력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민족주의계 여성운동가 및 급진적 여성운동가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사실이 상당히 규명되었다.²⁾ 또 사회주의단체인 화요회계와 북풍회계의 여성운동가인 허정숙과 정종명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³⁾

그러나 일제강점기 대표적 사회주의세력의 하나인 서울파 공산주의그룹의 여성운동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그룹의 대표적 여성운동가인 박원희를 전고(傳稿)로써 다룬 적은 없었다. 다만 1920년대의 사회주의운동과 여성운동을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박원희의 조선여성동우회, 경성여자청년회, 근우회 내에서의 활동과 김사국과의 관련성 등을 언급하였을 뿐이다.⁴⁾ 그녀가 사회주의 여성운동에 참여한 배

2) 민족주의계 여성인 김마리아와 황애덕, 김미리사, 김활란, 김필례, 유각경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박용옥, 『김마리아-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홍성사, 2003 ; 윤정란, 「황애덕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 『崇實史學』 22, 숭실사학회, 2009 ; 이배용, 「김활란, 여성교육·여성 활동에 새 지평을 열다」, 『한국사 시민강좌』 4, 일조각, 2008 ; 한상권, 「차미리사 평전 - 일제 강점기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 푸른역사, 2008 ; 이기서, 『교육의 길 신앙의 길, 김필례 그 사랑과 실천』, 태광문화사, 1988 ; 천화숙, 「1920~30년대의 여성운동과 兪珪卿」, 『한국사 인식의 두 관점 : 여성의 역사, 문화의 역사』, 해안, 2009.

급진적인 여성인 김명순, 나혜석, 윤심덕, 김일엽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민족문제연구소, 「새시대와 구시대의 단층에서 - 여류문학가 김명순」, 『女人列傳 - 여성, 세상을 열다』, 아세아문화사, 2006 ; 송호숙, 「식민지 근대화와 신여성 : 최초의 여류소설가 김명순-자유연애주의의 비극-」, 『역사비평』 17, 역사문제연구소, 1992 ; 이상경, 「나혜석, 가부장제에 맞선 외로운 투쟁」, 『역사비평』 31, 역사문제연구소, 1995 ; 노동은, 「식민지 근대화와 신여성 :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허무주의의 비가-」, 『역사비평』 17, 역사문제연구소, 1992 ; 이화형, 「김일엽 -여성담론의 새 장을 펼침」, 『뜻은 하늘에 몸은 땅에 -세상에 맞서 살았던 멋진 여성들』, 새문사, 2009.

3) 이애숙, 「정종명의 삶과 투쟁」, 『한국여성연구소 기타간행물』, 한국여성연구소, 1989 ; 서형실, 「허정숙-근우회에서 독립동맹투쟁으로」, 『역사비평』 19, 역사문제연구소, 1992 ; 강혜경, 「일제하 허정숙의 기자회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2007 ; 권수현, 「허정숙의 여성론 재구성」, 『페미니즘 연구』 10, 한국여성연구소, 2010.

4) 사회주의운동을 다루면서 박원희에 대해 언급한 글로는 다음의 것이 참고가 된다. 진명혁,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 선인, 2006 ; 이현주, 『한국사회주의 세력의 형성:1919-1923』, 일조각, 2003 ;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청계, 1987.

그리고 여성운동을 다루면서 박원희에 대해 논급한 것으로는 다음의 글이 도움이 된다. 박혜란, 「1920년대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조직과 활동」, 이화여대사학과석사논문, 1993 ; 오숙희, 「한국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 192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사학과 석사논문, 1988 ; 김경일, 「1920-30년대 한국의 신여성과 사회주의」,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5 ; 이송희, 「1920년대 여성해방론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계』 25, 부산경남사학회, 1994 ; 이송희, 「일제하 여성운동의 전개 -계승과 변화를 중심으로」, 『유관순연구』 5,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5 ; 전

결과 그녀의 여성해방사상, 그리고 여성단체 내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울파 공산주의그룹의 여성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박원희의 여성운동을 연구하는 것이 절실히 요망된다.

박원희(1898~1928)는 1924년 5월에 조직된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 ‘조선여성동우회’의 발기인이자 집행위원이었으며, 1925년 2월 ‘경성여자청년회’의 대표로 활동하였고, 1926년 12월 사회주의계 여성단체를 통합한 ‘중앙여자청년동맹’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약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1927년 4월 근우회를 발기하고 그 중앙집행위원 겸 교양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사망 후 그녀의 장례가 35개 단체의 ‘사회단체연합장’으로 치러질 정도로, 그녀는 1920년대 사회주의계 여성운동가 중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었다.⁵⁾

본 연구자가 굳이 박원희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해방사상을 연구하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는 이 글의 제1장에서 그녀의 출생 및 성장, 남편인 김사국과의 결혼 및 일본 유학 등을 통하여 그녀가 여성해방사상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어보려 한다. 제2장에서는 박원희가 전개한 여성해방운동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성단체를 조직하고 그 단체를 통하여 여성해방운동을 전개하는 부분과 민족해방운동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박원희가 주장한 여성해방사상의 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그녀가 여성의 현실과 그 원인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규명하고, 그녀가 설정한 여성해방의 목표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그녀의 강연문과 언론 기고 등을 통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신문과 잡지, 일제당국이 작성한 정보문서, 학적부, 족보와 후손의 회고록 등의 자료를 활용하려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박원희의 생애와 사상과 활동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1920년대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였던 서울파 공산주의그룹의 여성해방운동을 이해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상숙, 「『조선여성동우회』를 통해서 본 식민지 초기 사회주의 여성지식인의 여성해방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0 ; 송연옥, 「1920년대 조선여성운동과 그 사상」, 『1930년대의 민족해방운동』, 거름, 1984 ; 이지원, 「1920년대 여성운동의 이념과 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1 ; 박용옥, 『한국 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5) 사회단체연합장은 여성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라 하였다. 『조선일보』, 1928. 1. 9, 1면 1단, <시평-여성운동자>.

제 2 장 출생 및 성장과 여성해방사상의 형성

제 1 절 출생 및 성장

박원희(朴元熙)⁶⁾는 1898년 3월 10일, 충남 대전에서 부친 박래빈(朴來彬)과 어머니 충주 박씨의 막내딸로 태어났다.⁷⁾ 그녀에게는 오빠 박광희(朴廣熙)와 네 명의 언니가 있었다.⁸⁾ 그녀의 부친 박래빈은 첫 번째 부인인 풍양 조씨가 35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박원희의 어머니인 충주 박씨를 계배로 맞아들였는데, 오빠인 박광희와 박원희는 충주 박씨의 소생이었다.

박원희의 신분은 양반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였다. 외가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친가는 엄밀한 의미의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⁹⁾ 박원희의 아버지는 양반 집안의 서얼 출신이었다.¹⁰⁾ 따라서 그녀의 부친은 신분제의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원희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 이는 그녀의 경성여고보 학

6) 朴元熙(1898. 3.10-1928. 1. 5)는 호적에는 朴延熙, 학적부와 직원록에는 朴謹熙로 되어 있다. 박원희는 결혼 이후 사용한 이름인 것 같다.

7) 『高嶺朴氏世譜』 下, 高嶺朴氏世譜已編三 進士公派 十六(1919); 『忠州朴氏世譜』 五(1918), 「김사국 호적부」; 朴來彬 (1845-1900) 은 고령박씨 진사공파 27세손으로 字는 順卿이다. 호적에는 朴順京으로 되어 있다. 어머니 충주 박씨(1864-1941)는 朴泰孝와 창원 황씨 사이에서 1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8) 박광희(朴廣熙, 1882-1939)는 보성중학교 1회 졸업생으로, 1910년 예안의 보문의숙 교사였으며, 1920년대엔 조선노동공제회를 비롯한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32년-36년까지 대전 유성면장을 역임하였다. 『普中親睦會報』 제1집, 1910, p. 153 ; 신용하, 「조선노동공제회의 창립과 노동운동」, 『사회와 역사』 3, 한국사회사학회, 1986, p. 82 ; 「조선총독부 직원록」 (1932-1936), [출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9) 충주 박씨 족보에 따르면, 외조부 박태효(朴泰孝)는 충주 박씨 참판공파(공주) 22세손으로, 1824년 통정대부 행절충장군용호위부호군(通政大夫 行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 1829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1831년 가선대부 행용호위호군(嘉義大夫 行龍驤衛護軍)에 보임되었다. 외증조부 박환집(朴煥集)은으로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 戶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事)로 활동하였다. 외고조부 박상억(朴相億)은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으로 활동하였다. 『忠州朴氏世譜』 卷五 二十, 1918.

10) <학적부-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제4회(1914)졸업생>,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 034230. 이 기록에는 박원희의 신분이 양반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고령박씨의 족보에 의하면, 박원희의 6대조(고령 박씨 22대)는 朴民秀로 어사 朴文秀의 친형이다. 그리고 5대조 朴仁榮은 정3품 하의 문산계인 通訓大夫에 제수되고, 담양부사를 지냈으며, 고조부 朴正圭도 통훈대부에 제수되고 전주판관을 지냈다. 그렇지만 박원희의 부친 박래빈은 조부 朴永弼의 본 부인이 아닌 星州 李氏의 소생이었다. 당시 박영필의 계배 경주 이씨(1802-1871, 첫째 부인이 사망한 1822년 직후 계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필자)가 생존해 있던 1845년에 성주 이씨를 어머니로 하여 출생하였다. 따라서 박래빈은 양반이 아닌 서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高嶺朴氏世譜』 下, 高嶺朴氏世譜已編三 進士公派 十六(1919).

적부에 자산이 5,000엔으로 기재된 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¹¹⁾ 또 그녀의 오빠와 자신이 고등교육을 받은 것을 보아도, 그녀의 집안은 크게 궁핍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박원희는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는 슬픔을 겪었다. 그럼에도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아버지의 역할을 해 준 오빠 덕분에 불행한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다. 더구나 그녀는 집안의 막내였기에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늘 받으며 자라났다.

다만 어린 시절, 그녀는 당시의 관습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였다. 그녀는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당시의 인습 때문에, 남자 아이들처럼 공부를 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은 다음의 『동아일보』의 기사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어려서 자기 출생지인 대전에 있을 때에 자기모친에게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계집아이가 공부가 무엇이나고 거절하매 밥도 먹지 않고 오륙일을 울며불며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죽겠다고 야단을 침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보내 주마는 허락을 얻었다 한다.¹²⁾

위의 글에 따르면, 박원희는 “계집아이가 공부가 무엇이나”는 어머니의 편견 때문에 처음에 교육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박원희는 이러한 관습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을 고치려는 품성을 지녔다. 위의 기사처럼, 그녀는 어머니에게 요청하여 결국 근대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그녀가 밥을 굶으며 어머니를 설득하여 얻어낸 결과였다. 그녀는 당시 오빠가 보성고등보통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으면서, 그녀에게 공부를 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어머니의 편견과 남녀차별의식에 강하게 반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품성은 그녀의 성격에서도 드러난다. 그렇다면, 그녀의 성격은 어떠하였을까. 박원희의 성격은 학적부에 온순해서 동정심 깊고, 성실하다고 되어 있다.¹³⁾

11) 박원희의 학적부에는 경성여고보 1년 학자금에 6엔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산 5,000엔은 작지 않은 금액이었다. 1924년 보통학교 남자 교사들의 평균 월급은 52엔, 즉 연봉으로는 624엔이었다. 이무렵 월급이 100엔을 넘는다면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 여겼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친일재산에서 역사를 배우다』, 리북, 2010, p. 126 ; <학적부-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제4회(1914) 졸업생>,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 034230.

12) 『동아일보』 1928. 1. 7, 2면 3단, <悲劇接種하는 故金忠國氏 家庭>.

13) <학적부-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제1회(1916)졸업생>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 034228.

『동아일보』 1928년 1월 7일자 기사 “열정적이면서도 침중하여 무엇을 하기로 하면 최후까지 꿋꿋하게 나가든 특징이 있었다.”¹⁴⁾라는 내용으로 볼 때 성실하고, 열정적인 면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는 그녀와 함께 활동하였던 우봉운(禹鳳雲)이 “운동에 대한 굳은 신념과 동지의 사랑 속에서 꿋꿋한 그의 행진의 걸음을 멈추어 본 적이 없어서 우리들의 마음까지 든든하게 하여 주었다.”고 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¹⁵⁾ 즉, 그녀는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임했으며, 성실함과 꿋꿋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차상찬(車相瓚)의 회고도 이러한 그녀의 성격과 품성 및 태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차상찬은 그녀의 오빠 박광희가 “나의 자제(姉弟)가 외모는 나와 같아서 비록 보잘 것 없으나 속은 엉뚱하야 생각이 제법 관계치 않고 공부(工夫) 성적(成績)도 좋으며 변재(辯才)가 또한 있다.”고 하며, 그녀의 중매를 부탁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차상찬이 직접 본 박원희는 “어찌나 수줍은지 구경을 다니는데도 얼굴을 꼭 숙이고 다니었다.”고 하였다.¹⁶⁾ 그렇다면 박원희는 엉뚱하다는 말을 들을 만큼 평소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하여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를 하던 학생이었다. 또한 동정심이 깊은 정도로 착하고, 순한 데다가 수줍음이 많았다. 그러나 생각이 깊어 말도 잘하고, 성적이 좋을 정도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한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이와 같이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한 사고를 지니고 있었던 박원희의 성향은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다. 생각이 깊고 자유로웠기 때문에 신사상이었던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하게 되었고, 이를 이념으로 하는 민족운동과 여성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그녀의 뛰어난 말재주는 여성해방사상을 선전하는 강연에서 발휘되었으며, 청중들을 감화시켜 여성해방운동에 동참하도록 이끌었다.

박원희는 1909년(12세) 4월 관립한성고등여학교에 입학하였다.¹⁷⁾ 박원희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예과 과정부터 시작하였다. 당시 예과 과정은 정부에서

14) 『동아일보』, 1928. 1. 7, 2면 3단, <悲劇接種하는 故金思國氏 家庭>.

15) 우봉운, 「오호동지-여류운동가 박원희군-최후의 병석을 추억하며-」, 『삼천리』 7, 1930.7, p. 35. [출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이하 출처 생략].

16) 차상찬, 「만나보기 전과 만나본 후, 상상과 인상기」, 『별건곤』 3호, 개벽사, 1927. 1, p. 43.

17) 박원희가 입학 당시 관립한성고등여학교였던 학교 명칭은 1911년 8월 23일 조선총독부 칙령 제 229호 발포된 조선교육령에 따라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로 바뀌었다. 경운회 100주년 기념사업편찬위원회, 『경기여고 100년사』, 경운회, 2009, p. 5; <학적부-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제4회(1914)졸업생>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 034230.

여성에게 보통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던 데다 사립여학교에서 학년의 구분 없이 교육을 하였기에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없어 초등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¹⁸⁾ 그녀는 예과에서 수신, 국어(조선어)와 한문, 일어, 산술, 이과, 도화, 재봉, 음악, 체조, 수의 과목(수예)을 배웠다.¹⁹⁾ 예과에서 박원희의 성적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평범한 수준이었던 것 같다. 이는 예과 과정의 성적우수자들이 1년 만에 본과에 편입되었던 것과 달리 박원희는 예과 과정 2년을 수료한 후, 본과로 진학하였던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

박원희는 1911년(14세) 4월에 본과에 들어가 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다음의 【표 1】은 박원희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본과 성적표이다.²⁰⁾

【표 1】 박원희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성적표

과목 학년	수 신	국 어	朝 漢	역사 지리	산 술	이 과	가 사	습 자	도 화	재 봉	수 예	음 악	체 조	평 균
1	9	9	9	9	9	10	9		9	9	9	8	7	9
2	9	9	9	9	8	10	8	9	9	9	9	7	9	9
3	9	9	8	10	9	9	10		9	9	9	7	8	9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박원희는 음악과 체조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9점 혹은 10점을 받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다. 음악점수는 7~8점을, 체조점수는 평균 8점을 받았다. 즉, 박원희는 예체능과목은 소질이 없거나 관심이 적었지만, 다른 과목에는 재능이 있고 관심도 많았던 것이다. 17세가 되던 1914년(4회) 졸업할 때 석차는 28명 중 2등이었다.²¹⁾

졸업 후 일 년을 쉬었던 박원희는 1915년(18세),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부설 사범과에 입학하였다. 이는 그녀가 사범과를 마친 후 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정하였기 때

18) 손성희, 「官立漢城高等女學校의 設立過程과 敎科課程 研究」,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p.49 ; 현경미, 「식민지 여성교육사례연구-경성여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p. 35, 재인용 ; 관립학교에서의 여성교육은 1908년 실현되어 1908년에는 4개 보통학교(대구, 함흥, 군산, 여주)가, 1909년에는 7개 보통학교(어의동, 평양, 개성, 강화, 목포, 전주, 마산)가 여자학급을 두었다. 1909년 9월 관공립보통학교에 여학생수는 423명이었다.

19) 손성희, 위의 논문, p. 59.

20) <학적부-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제4회(1914)졸업생>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 034230. ; 당시 경성여고보는 1년 3학기제로 운영되었고, 성적은 학기마다 평가되었다. 표의 점수는 학년별 점수이다.

21) <학적부-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제4회(1914)졸업생>,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 034230.

문이다. 그녀는 당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교사라는 직업이 지닌 장점을 생각하였다. 교사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에, 그녀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그녀의 사범과 입학시험 성적은 국어(일본어) 81점, 조선어와 한문 70점, 산술 20점이었는데, 이 성적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녀는 사범과 재학 당시에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다음의 【표 2】는 박원희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성적표이다.²²⁾

【표 2】 박원희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성적표

과목	수 신	국 어	朝 漢	산 술	이 과	교 육	습 자	도 화	재 봉	수 예	음 악	체 조	총 점	평 균
학점	9	9	9	9	10	9	9	9	10	9	8	8	108	9

위의 표에서도 보이듯이, 그녀는 음악과 체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과목에서 9점과 10점을 받았다. 졸업할 때 석차는 19명중 2등이었다. 특히 학적부에는 그녀가 특히 잘한 과목이 국어와 산술, 이과, 재봉, 수예라고 적혀있다. 이때 습득한 일본어와 재봉, 수예 과목은 이후 그녀의 일본 유학생생활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생활까지 그녀에게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도움이 되었다.

1916년 사범과 졸업 후 박원희는 바로 철원공립보통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다.²³⁾ 그녀는 마침내 교사가 되어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철원에서 근무하게 되어 어머니와 오빠의 곁을 떠나 심리적으로도 홀로 서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식민지 시기 교육은 계몽과 자강의 필수 조건으로,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식민지 조선을 위한 민족운동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녀의 이러한 생각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박원희는 의무복무기간인 4년만 채우고 1920년 초 교사직을 그만두었다.²⁴⁾ 그녀의

22) <학적부-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제1회(1916)졸업생>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 034228.

23) 『총독부 직원록』 (1917-1919), [출처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동아일보』, 1928. 1. 7, 2면 3단, <悲劇接種하는 故金思國氏 家庭>.

24) 1911년 10월 제정된 조선총독부령 제131호 ‘학교생도 학자급여 및 졸업후 복무의무등에 관한 건’에 의하면, 재학생에게는 학자가 지급되는 반면 중퇴자나 복무의무를 이행치 않은 졸업자는 학자를 반환토록 하며, 4년의 복무의무가 부과되었다. 김영우, 『한국근대교원교육사』 I, 정민사, 1987, pp.

가치관과 식민지 당국의 교육방침이 달랐던 데에서 공립학교 교원이라는 지위에 회의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1920년대 초까지 민족의식이 고조되어 있던 시기에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것이 식민지의 지배체제에 일조하는 것이라는 민족적 각성을 하였던 것 같다. 다음의 글은 그녀의 이러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²⁵⁾

현하 조선 여자교육의 일반현상을 해부하여 보면 교육의 주지는 일선동화의 현 모양쳐주의로써 여자를 도구화 상품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지로써 실행하는 교육은 그것에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조선인이라는 또는 조선인의 실생활에서 생기는 사상과 감정을 무시하고 조선인에 적당하지 아니한 교수방법을 취하게 된다.

위의 글은 1927년 7월 8일에 박원희가 ‘숙명여고 맹휴사건’ 이후에 신문에 기고한 내용 중 일부이다. 그러나 그녀는 철원공립보통학교 교원시절부터 이미 일제 식민지 당국이 일선동화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적인 면에서 ‘상당한 기술’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에게 조선인에 적당하지 않은 교육방법을 요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그녀는 교사생활에 회의감이 들었고, 이는 그녀가 교사를 그만두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상에서 박원희의 출생과 성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박원희는 어렸을 때부터 남녀차별에 대한 편견과 그 의식에 반발하는 성품을 지녀 그것을 고치려고 하였다. 한편으론 온순하고 동정심 많고 수줍음을 지니기도 하였지만, 매사에 성실하고 열정적이었으며, 한번 하기로 한 것은 끝까지 관철시키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근대 교육을 받기 위해 밥을 굶으며 어머니를 설득하기도 하였다. 학교 성적도 우수한 모범생이었던 그녀는 졸업 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교사가 되고자 하였고, 이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공립학교 교원생활은 의무복무기간을 채웠을 뿐이다. 그녀는 개인적인 가치관과 식민지 당국의 교육정책에서 갈등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족적 각성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71-177 ; 총독부 직원록에는 1917년부터 1919년까지 이름이 있다. 졸업년도가 1916년인 점을 감안할 때, 졸업 후 바로 교사생활을 하였다면, 그녀가 교사로 재직한 기간은 4년이 되어 의무복무기간을 지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총독부직원록』(1917-1919), [출처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5) 『동아일보』, 1927. 7. 8, 3면 6단, <조선여자교육의 현상과 근본정신>.

제 2 절 여성해방사상의 형성

1920년 초 서울로 돌아온 박원희는 소위 ‘문화통치’의 공간 하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던 민족운동의 흐름에 동참하기로 결심하였다. 마침 1920년 그녀의 오빠 박광희는 조선노동공제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박원희는 오빠의 활동에서 영향을 받아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²⁶⁾

그러던 중 그녀는 사회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던 김사국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가 김사국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동창인 오빠의 소개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당시 김사국은 1919년 4월 23일 ‘국민대회사건’으로 구속되어 1920년 9월 6일에 만기 출옥한 후, 조선노동대회에 참여하고, 1921년 1월 서울청년회를 설립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박원희는 김사국의 품성과 활동 등을 보고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²⁷⁾ 뿐만 아니라 그녀는 김사국의 사상에 매료되어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그와 함께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1921년 7월 15일, 박원희가 김사국과 결혼하면서, “굳센 용사가 되어 잘못된 사회를 바로 잡읍세다”라고 말하였던 것²⁸⁾은 바로 그 단적인 증거이다.

결혼 직후인 1921년 10월 무렵, 박원희는 김사국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박원희는 일본에 가서 밤이면 양복직공이 되어 학비를 벌었다.²⁹⁾ 양복직공으로 일하면서, 그녀는 가난하고 무식한 여성들의 삶에 대하여 경험하였고, 여성의 삶을 개선해

26) 박광희는 1920년 2월 ‘조선노동공제회’ 창립을 위한 모임인 <조선노동문제연구회>결성에 참여하였다. 이 후 1920년 4월 11일 창립총회에서 의사회(議事會)소속의 의사원으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신용하는 조선노동공제회가 민족주의그룹과 사회주의그룹이 연합된 기관인데, 그중 민족주의그룹을 신민회의 비합법적 지하청년단체인 대동청년당(단)의 후신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당시 보성중학교 교장 박중화를 중심으로 하여 남형우의 집에서 조직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회원들은 일제강점기 이후 국외망명을 하거나 신민회 사건 이후 활동을 종료했으나, 1919년 3·1운동 직후부터 17회에 걸친 토의를 거듭한 끝에 노동문제연구회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신용하, 「조선노동공제회의 창립과 노동운동」, 『사회와 역사』 3, 한국사회사학회, 1986, pp. 79-94.

27) 『동아일보』, 1920. 9. 6, 3면 9단, <國民大會三氏 오늘오전중에 만기되야 출옥>; 전명혁에 따르면, 김사국이 출옥 후 처음 공식적으로 활동한 단체는 동생인 김사민이 관여했던 조선노동대회였다고 한다. 김사국은 1921년 1월 서울청년회 창립에 이사로 참여하였으며, 조선청년회연합회에 가입하여 순회강연을 다니고, 기관지인 「아성」에 글을 기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전명혁은 1921년 1월 서울청년회의 창립부터 1922년 4월 무렵까지 김사국의 활동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지닌 한 개인이 급속히 사회주의자로 변모하게 되는 과정을 응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전명혁, 「해방 김사국의 삶과 민족해방운동」,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 선인, 2006, pp. 442-449.

28) 『동아일보』, 1926. 5.28, 3면 1단, <동지요 남편을 일흔 고김사국씨부인 박원희씨의 슬픔>.

29) 『동아일보』, 1928. 1. 7, 2면 3단, <悲劇接種하는 故金思國氏 家庭>.

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여성해방사상의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그녀는 일본유학시절 영문과 사회과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다.³⁰⁾ 이 과정에서 그녀는 사회주의에 대한 서적과 아울러 여성해방사상에 관한 다수의 책을 읽었다.

그녀가 일본에 머무르면서 읽었던 여성해방에 관한 책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당시 일본의 여성해방운동의 사조에 영향을 받았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11년 일본 최초의 여성잡지인 『세토(靑鞆)』의 창간으로 여성해방에 대한 새로운 기조가 형성되었다. 세토사(靑鞆社)의 여성들은 ‘여성’과 ‘성’을 키워드로 삼아 천황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에(家)제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조논쟁’, ‘낙태논쟁’, ‘폐창논쟁’을 벌였다. 세토사의 중심 인물이자 엘렌 케이³¹⁾를 신봉하였던 히라쓰카 라이초(平家らいてう)는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전개된 ‘모성보호논쟁’³²⁾을 시작하였고, 1919년 신부인협회를 창립하고,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치안경찰법 제5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참정권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1921년 세키란카이(赤瀾會)라는 사회주의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여성문제를 계급문제와 자본주의제도와 관련하여 다루기도 하였다.³³⁾ 또한 박원희가 일본에 유학하던 당시에는 엘렌 케이의 사상이 다시 부각되고 있었다. 엘렌 케이에 대해서는

30) 『조선일보』, 1928. 1. 7, 2면 9단, <여성운동선구 박원희여사 영면>.

31) 엘렌케이(Ellen Key, 1849-1926)는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에 수용된 스웨덴 출신의 서구 페미니즘 사상가이자 교육학자였다. 루소와 니체의 영향을 받은 케이는 억압받는 여성과 아동의 해방을 부르짖었다. 궁극적으로 모성에 대한 옹호로 수렴되는 개인주의와 자유연애, 결혼의 절대 자유, 성적 자유의 남녀평등을 주장하였다. 당시 유럽에서 그녀는 모성존중론과 아동중심주의 교육의 제창자로서 평가되었지만, 일본 그리고 일본을 통해 케이를 수용한 한국과 중국의 경우 그녀의 ‘근대적 연애’에 먼저 열광했다가 나중에 그녀의 모성주의에 눈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엘렌케이의 사상은 노자영이 ‘여성운동의 제일인자-엘렌 케이’라고 하여 『개벽』 1921년 2월과 3월호에 소개하였다. 천성림, 「모성의 ‘발견’-엘렌케이와 1920년대의 중국」, 『동양사학연구』 87, 2004, p.189.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pp. 128-129.

32) 일본의 모성보호논쟁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방법론을 둘러싸고 요사노 아키코와 히라쓰카 라이초가 논쟁을 시작했고, 그 뒤에 야마카와 기쿠에, 야카다 와카가 합류하면서 전개되었다. 히라쓰카는 국가가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임신, 출산, 육아기의 여성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모성중심주의라고 제창한다. 이에 반해 요사노는 국가에 의한 모성보호를 부정했다. 임신과 출산을 국가의 보조역할로 인정한 히라쓰카가 주장하는 모성중심주의가 형식을 바꾼 현모양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하고, 국가에 의한 모성보호를 ‘奴隸道德’ ‘의뢰주의(依賴主義)’라고 비난했다. 또한 ‘부인은 남성에게도 국가에게도 기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성해방사상가인 야마카와 기쿠에는 요사노와 히라쓰카의 쌍방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국가보호(히라쓰카)와 경제적 자립(요사노) 대립에 차별이 없는 사회만이 부인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사회주의 입장에서 주장했다. 오고시 아이코 지음, 전성곤 옮김, 『근대일본의 젠더 이데올로기』, 소명출판, 2009, p.137. 재인용.

33)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 한울아카데미, 2005, pp. 56-79 ; 오고시 아이코, 전성곤 옮김, 위의 책, pp.105-145.

이미 1911년부터 잡지에 소개되어, 특히 히라쓰카 라이초는 엘렌 케이의 『연애와 결혼』을 번역하여 1913년 1월부터 1914년 12월까지 『세토(靑塔)』에 연재하였다. 1922년 7월, 혼마 히사오(本間 久雄)는 기존에 자신이 번역하였던 논저를 모아 『엘렌케이 논문집』을 다시 출판하였다.³⁴⁾ 즉, 박원회는 1920년대 초 일본에서 유행하던 이러한 여성해방사상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박원회가 1923년 ‘동양학원사건’으로 수감되었을 때, 일본어로 된 엘렌 케이의 저서를 번역하였던 것은 그녀가 이미 일본에서 엘렌 케이의 저작을 읽었거나, 엘렌 케이의 사상을 접하였음을 알려준다고 여겨진다. 또 그녀가 국내에서 ‘모성보호’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활동하였는데 이는 그녀가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모성보호논쟁’을 인지하여 그 중요성을 깨달았던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1923년 초 박원회가 귀국하였을 때³⁵⁾ 그녀는 여성해방사상을 수용하여 어느 정도 체내화 하고 있었다. 1923년 3월 26일 여고상조회가 주최하는 강연회에서 박원회는 ‘여성의 반역’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³⁶⁾ 강연제목으로 볼 때, 이미 그녀는 기존의 제도와 관습의 굴레에서 고통을 받는 여성들에게 이를 묵묵히 따르지 말고, 이에 저항할 것을 촉구할 정도로 확고한 여성해방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여성해방사상은 사회주의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더욱더 공고해졌다. 그녀는 귀국하여 서울청년회와 무산자동맹회에서 활동하였다.³⁷⁾ 그러면서 그녀는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였다.³⁸⁾ 박원회는 1923년 3월 24일부터 30일

34) 히로세 레이코 「일본의 ‘신여성’과 서양여성해방사상 -엘렌 케이 사상의 수용을 둘러싸고」, 『여성과 역사』 5, 한국여성사학회, 2006, pp. 96-101.

35) 『동아일보』, 1928. 1. 7, 2면 3단, <悲劇接種하는 故金思國氏 家庭>; 『조선일보』, 1928. 1. 7, 2면 9단, <여성운동선구 박원회여사 영면>; 『동아일보』에는 낮에는 양복직공으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여 3년 만에 귀국하였다고 되어 있고, 『조선일보』에는 1년 동안 영문과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두 기록을 종합하면 1923년 초에 귀국한 것으로 짐작된다.

36) 연사는 박근희로 되어 있으며, 이들 연사들은 요사이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박근희는 박원회가 학교 때 사용한 이름이며, ‘동양학원사건’으로 검거되었을 때 일본 경찰문서에도 박원회와 함께 이명 박근희가 기록되어 있다. 『동아일보』, 1923. 3.26, 3면 9단, <여자고학생상조회주 최준계대강연회(모임란)>.

37) 우봉운, 「오호동지-여류운동가 박원회군-최후의 병석을 추억하며-」, 『삼천리』 7, 1930.7, p. 36. 우봉운의 회고에 따르면, “내가 년전에 해삼위로부터 나와서 북간도에 온 즉 그 곳에 박원회 여사가 있었다. 그는 서울청년회의 쟁쟁한 투사로 또 무산자동맹회원으로 족적이 국내국외에 멀리 미치어 매우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때이다.”라고 하여, 박원회가 1923년 4월 북간도에 오기 전 국내에서 서울청년회와 무산자동맹회에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38) 무산자동맹회의 강령 중에는 “부인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부인의 계급적 경제적 안정된 해방을 기함”이 있었다. 박철하, 「1920년대 전반기 ‘중립당’과 무산자동맹회에 관한 연구」, 『승실사학』 13, 승실사학회, 1999, p. 23 재인용.

까지 약 1주일동안 서울청년회에서 주도한 ‘전조선청년당대회’³⁹⁾에 개인자격으로 참가하였다.⁴⁰⁾ 박원회는 당시 참석하였던 여성인 김해여자청년회의 김필애, 불교여자청년회의 우봉운, 조선여자청년회의 신알베트 등⁴¹⁾과 제1분과위에서 부인문제와 관련된 토론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논의되었던 안건은 다음의 8건이었다.⁴²⁾

1. 남성의 횡포에 대한 반항의 건
2. 가정제도개혁의 건 (남자 본위의 가정제도를 개혁할 것) (가결)
3. 사회제도개혁의 건
4. 경제적 독립의 건
5. 인습타파의 건
6. 현모양처주의 반대의 건 (부결되었다가 재론하여 가결)
7. 자유결혼 및 자유이혼의 건 (가결)
8. 공창폐지의 건 (가결)

이 여덟 안건 중에서 가결된 것은 가정제도 개혁, 현모양처주의 반대, 자유 결혼 및 자유 이혼, 공창폐지의 네 건이었다. 사회제도 개혁, 경제적 독립, 남성의 횡포에 대한 반항, 인습타파의 네 건은 부결되었다. 그리고 가결된 현모양처주의 반대의 건은 재론 끝에 어렵게 가결되었다. 그녀는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한계 속에서도 현모양처주의에 대한 반대를 이끌어내었다. 그렇지만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박원회는 남성 사회주의자들과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절감하였다. 이 경험은 박원회의 여성해방사상이 더욱 구체화 되고, 그녀가 여성해방운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원회는 김사국이 수배를 당하여 해외에서 활동하자, 1923년 4월 남편을 찾아 북

39) 전조선청년당대회는 원래 서울청년회가 청년운동과 민족운동의 전국적 기관을 건설하기 위하여 1922년 10월 30일 개최를 목적으로 당시 대표였던 김사국이 1922년 9월 18일 전국의 청년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였었다. 그러나 조선청년회연합회의 반대로 다음해 3월로 미뤄진 것이다. 1923년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94개 단체 대표 154인의 출석과 개인참가 50여명의 출석으로 거행되었다. 대회는 3분과로 나뉘어 교육·종교·여성문제(1분과), 노동·경제문제(2분과), 민족문제·사회문제·청년단체존립 및 발전책(3분과) 등을 토의하고 결정했다. 전명혁, 위의 책, p. 147.

40) 『조선일보』, 1923. 3.26, 3면 1단, <대성황의 청년당대회. 백여 단체의 대표로 충만한 회장>.

41) 오숙희, 「한국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 192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7, p. 159.

42) 김준엽·김창순 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청계연구소, 1987, p. 117.

간도로 이주하였다.⁴³⁾ 이곳에서 그녀는 용정촌의 대성학교에 설립된 간이 중학교인 ‘동양학원’⁴⁴⁾의 영어강사로 활동하였다.⁴⁵⁾ 그녀는 1923년 4월 동양학원 개강 선서식장에서 학생들에게 “혹은 동(東)으로, 혹은 서(西)로...”⁴⁶⁾라고 연설하여 학생들에게 자립심과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주의사상을 전파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1923년 7월 4일, 박원회는 동양학원의 하계강좌를 홍보하려고 함북 회령에 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 사유는 동양학원에 있으면서 방한민 등과 선전부와 특별부를 조직하고 사회주의사상을 전파하였다는 소위 ‘동양학원사건’ 관련 때문이었다.⁴⁷⁾ 박원회는 1923년 9월 29일 예심에서 기소유예로 풀려나기까지 옥고를 겪었다.⁴⁸⁾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옥고로 아이가 유산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하였다.⁴⁹⁾

박원회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성해방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것은 다음의 기록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⁵⁰⁾

東洋學院의 폐허에는 우거진 가을 풀에 달빛만 밝아 있는 반면으로 임신 중 누의
님이 말할 줄 모르는 「세뎌」 바닥에 국그릇을 내여 던지고 때 아닌 炎天에 깎두

43) 이 무렵 김사국의 수배는 자유노동자대회와 관련한 ‘신생활사 필화사건’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명혁은 1922년 11월 서울과 ‘공산주의 그룹’에 의해 조직과 공산주의적 선전을 하기 위하여 간도와 만주에 파견되었으며, 이는 코민테른4차대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1923년 2월 20일 고려공산동맹 창립대회는 코민테른과의 상설적인 연락기관의 설치와 코민테른으로부터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받는 일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김사국을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원동부에 파견하였다. 전명혁,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선인, 2006, pp. 142-144.

44) 동양학원은 용정촌 제4구에 있는 대성중학교의 아래층 교실 두 칸을 점하고 대성중학교의 제1회 졸업생들을 위주로 70여명의 청년학생들을 모집해 중학교 정도의 수준을 가르친 남녀공학이었다. 방한민과 동아일보 지국장 김정기가 설립하였는데, 김사국이 설립을 주도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한생철, 「혁명의 열기로 들끓던 배움터-대성중학교」, 『연변문사자료』 6, 1988, p. 32.

45) 『동아일보』 1923.10.14, 3면 6단, <용정촌중대사건 예심종결결정서전문>.

46) 새박, 「아하. 따즈막 얼골, 除夜의 슬픈 종소리 들으면서」, 『삼천리』 3, 1931.12, p. 18.

47) 『동아일보』 1923. 7.15, 4면 5단, <동양학원순강, 의외의 경찰에 구인되는 화로 중지>; 동양학원사건이란, 방한민을 비롯한 동양학원관계자들이 7월 8일을 기해 용정촌 각 영사관과 공관에 폭탄을 던져 건물을 파괴하고 주요관리를 암살하여 민심이 동요되는 기회를 이용해 사회주의 선전서를 배포할 음모를 계획하였다하여 7월 4일 오전 5시에 용정촌 토성교 부근에서 간도제국총영사관 경찰에 의해 검거된 사건이다. 고경 제2474호, 조선총독부 경무국, 「적화선인의 불령음모사건 검거에 관한 취조 개요」(1923. 7. 21),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선인과 과격파』(4), [출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이하 출처 생략]

48) 박원회와 맹진은 방면하고, 그 외는 모두 청진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기밀 제295호, 鈴木要太郎(間島 總領事), 「공산주의 선인의 불령음모 사건 예심 종결에 관한 건」(1923. 10. 5), 『불령단관계잡건- 조선인의 부-선인과 과격파』(4).

49) 『동아일보』, 1928. 1. 7, 2면 3단, <悲劇接種하는 故金思國氏 家庭>; 외손녀 김운숙과의 면담(2011. 3. 8)을 통해 간도에서의 감옥생활로 첫아이를 유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50) 새박, 앞의 논문, 앞의 책 3, 1931.12, pp. 18-19.

기를 차아 간수들을 분주히 구든 龍井감옥은 그때보다 一部建이 四部建으로 확장 되었으면서도 …… 누의님이 옥중에서 번역하든 「엘렌. 케이」 여사의 학설과 「노동운동」, 朝鮮日報 등에 실린 遺稿 數 面은 지금 말없이 자울고 있으나 누의님의 집에 붙어있던 「京城女子青年會」의 간판은 지금에 어디런가요?

위의 글과 같이, 박원희는 임신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여성운동가인 엘렌 케이의 저작을 번역하고 있었다. 그녀가 굳이 엘렌 케이의 저작을 번역하였던 것은, 엘렌 케이가 대표적 여성해방사상가이기도 하지만, 엘렌 케이의 ‘모성보호’ 사상에 각별히 공감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옥고로 인한 유산의 아픔에서 ‘모성보호’를 강조하는 엘렌 케이의 사상을 전파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박원희가 일본유학생생활을 통하여 여성 문제를 인식하여 여성해방사상을 수용하고, 귀국 후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내면화하고 그녀만의 여성해방사상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일본유학생생활 중 엘렌 케이를 비롯한 여성해방사상을 접하고 있었던 박원희는 사회주의 활동을 하면서 남성들의 여성문제인식에 차이를 느꼈고, 동양학원사건으로 옥고를 겪으면서 엘렌 케이의 모성보호를 권리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박원희는 이미 사회주의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받아들인 상태였다. 따라서 박원희는 엘렌 케이의 모성주의를 사회주의 사상과 접목시켜 그녀만의 여성해방사상을 형성하였다고 하겠다.

제 3 장 박원희의 여성해방운동의 전개와 한계

제 1 절 여성단체의 조직과 여성해방운동의 전개

먼저 박원희가 여성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그녀의 여성해방운동단체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광진부인회, 조선여성동우회, 경성여자청년회, 중앙여성청년동맹, 근우회 등의 여성단체에서 그녀가 행한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923년 7월 4일 동양학원사건으로 검거되었다가 같은 해 9월 29일, 기소유예로 풀려난 박원희는 1923년 말 혹은 1924년 초 간도에서 서울로 돌아와 신숙경·이명순 등이 1923년 9월 25일 와룡동에서 조직한 광진부인회(廣進婦人會)⁵¹⁾에 가입하였다. 광진부인회는 광진여자강습소를 운영하였는데, 교사 경력을 가진 그녀가 강사로 초빙되면서 광진부인회 가입의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 같다. 물론 무산자를 위한 교육을 표방하던 광진부인회의 취지에 그녀가 공감한 것이 직접적인 참여의 이유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광진부인회에 가입한 박원희는 점차 회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나아갔다. 광진부인회의 설립자 겸 최고책임자인 신숙경(申淑敬)은 미국에 갔다 남편을 여의고 귀향한 인물로 신식교육을 받지 않은 60대의 고령이었다.⁵²⁾ 반면에 경성여고보를 나와 철원공립보통학교의 교사로 활동하고, 일본에 유학한 박원희는 20대 중반의 신진여성이었다. 이런 점으로 인해 박원희의 광진부인회 내 위상은 점점 높아갔다. 이는 그녀가 1924년 4월 ‘조선청년총동맹’ 창립대회에 광진부인회의 대표로 참석한 사실

51) 광진부인회는 1923년 9월 25일, 와룡동에서 신숙경·이명순 외 여섯명의 발기로 조직된 단체였다. 처음에 ‘빈민상조회(貧民相助會)’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그 이듬해 겨울에 ‘광진부인회’로 바뀌었으며, 그 회의 경영으로 운영한 학원이 ‘광진강습원’이었다. 광진부인회는 설립 때부터 부인의 상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적어도 조선부인으로서 조선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부녀자체의 장래를 개척하며 여성의 인격적 지위를 회복하는 정신을 넣어주려고 전심전력하였다. 광진부인회는 반도청년회, 반도여자청년회 등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학원의 이름도 광진여자강습원에서 반도여자학원으로 변경되었다. 반도청년회로 바뀌면서 남녀회원을 두게 되었고, 반도학원이라는 이름이 반도여자학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25. 3.30, 2면 1단, <와룡동반도학원>; 『동아일보』, 1925. 3. 1, 2면 10단, <반도청년창설>; 『조선일보』, 1925.12.23, 3면 1단, <경성에서 활동하는 여자단체6.반도여자청년회>.

52) 『조선일보』, 1925.12.23, 3면 1단, <가정부인-경성에서 활동하는 여자단체(6) 반도여자청년회>.

로 잘 알 수 있다.⁵³⁾ 그러니까 박원회는 광진부인회에서 사회주의자이자 여성운동가로서의 발판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광진부인회의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김사국이 장악하고 있던 서울청년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1924년 10월 6일 개최된 서울청년회의 창립 제4주년 기념식에 광진부인회가 축문을 보냈는데,⁵⁴⁾ 아무래도 이는 박원회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광진부인회가 발전하여 성립된 반도청년회와 반도여자학원이 1925년 무렵 서울계 단체로 파악된 것으로 볼 때,⁵⁵⁾ 그녀는 1925년 광진부인회의 후신인 반도청년회에도 힘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원회는 광진부인회와 서울청년회를 배경으로 사회주의운동계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그녀는 1924년 4월 24일 ‘조선청년총동맹’(이하 청총) 창립대회에 참가하여 유일한 여성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⁵⁶⁾ 당시 청총은 서울청년회가 주도하고 화요파의 신흥청년동맹이 참여한 통일적인 조직체였는데, 그녀는 김필애(金弼愛), 고원섭(高遠涉), 오수덕(吳壽德) 등과 함께 참여하였던 것이다.⁵⁷⁾

박원회는 여성해방의 실현을 위하여, 1924년 5월 사회주의계 여성들과 함께 전국적인 규모의 여성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를 조직하였다. 그녀는 여성운동을 지도할 최고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의 조직에 적극 참여한 것이다. 1924년 5월 10일, 박원회는 조선여성동우회의 창립총회에서 허정숙(許貞淑), 주세죽(朱世竹) 등과 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다.⁵⁸⁾

박원회의 조선여성동우회 내에서의 위상은 어떠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표 3】**이 참고가 된다.

-
- 53) 경중경고비 제4619호의 4, 경성 종로경찰서장, 「조선청년총동맹 창립대회의 건」(1924. 4. 23), 『검찰행정사무에 관한 기록』(1).
- 54) 서울청년회 창립 제4주년 기념식은 1924년 10월 6일 오후 7시 반부터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경중경고비 제12299호의 3, 경성종로경찰서장, 「서울청년회 창립 제4주년 기념회에 관한 건」(1924.10. 7), 『검찰행정사무에 관한 기록』(2).
- 55) 일본경찰은 서울계 청년단체로 반도청년회와 반도여자학원을 포함하고 있다. 반도청년회 대표는 박원회 외 2명, 반도여자학원은 신숙경 외 1명으로 되어있다. 京鍾警高秘 제10201호의 1, 경성종로경찰서장, 「청년단체 조직증가에 관한 건」(1925. 9.10),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1).
- 56) 『동아일보』, 1924. 4.25, 2면 6단, <조선청년총동맹의 청년임시대회>.
- 57) 『시대일보』, 1924. 4.23, 1면 2단, <청년총동맹 제2일>.
- 58) 선출된 발기인은 모두 14명이었으며, 발기인 14명은 박원회, 정종명, 김필애, 정철성, 김현제, 홍순경, 오수덕, 고원섭, 우봉운, 지정신, 주세죽, 최성삼, 허정숙, 이춘수이다. 임시의장으론 김필애가 선출되었고, 서기 허정숙, 사찰 우봉운이었다. 『조선일보』, 1924.5.13, 3면 1단, <여성동우회 창립>; 경중경고비 제5577호, 종로경찰서장, 「조선여성동우회창립총회의 건」(1924. 5. 10), 『검찰행정사무에 관한 기록』(1).

【표 3】 조선여성동우회 발기인 명단

이름	생몰연대	출신지	학력	사회경력	전거
박원희	1898-1928	충남 대전	경성여고보 사범과	서울청년회 고려공산동맹원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고원섭	? - 1930	경남 밀양	밀양교회, 부산초량교회 교인	동아일보 설립주주, 밀양분국장, 밀양야학교교장, 밀양여자청년회장	동아1930. 9.11 논문
김필애	1896추정	경남 김해	경성 정신여학교	김해여자청년회	삼천리
김현제		경북 영주 추정		조선여자강습소, 조선노동대회 집행위원(서울파)	조선1923. 8.23 개벽
우봉운	1890추정	경남 김해	경성 정신여학교	불교여자청년회, 경성능여자학원 장	삼천리
이춘수	1893추정	경남 대구	경성여고보 사범과	대구여자청년회	삼천리
정종명	1896-?	경성	배화여고중퇴, 세브 란쓰병원 간호부 총 독부 조산부과	조선여자고학생상 조회(북풍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정철성	1897-1958	경북 대구	한남권번 기생 동경영어강습소	대구여자청년회	삼천리
주세죽	1901- ?	함남 함흥	함흥영생여학교 상해 안정씨여학교	조선여자고학생상 조회(화요파) 고려공청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지정신	1895-?	황해 해주	경성 성서학회	전도사, 염군사 기자, 해주청년회	왜정시대인물사료
최성삼	1905-?	평남 성천	경성이화여고보	조선여자고학생상 조회, 염군사 기자	매일1936.12. 4
허정숙	1902-91	함북 명천	배화여고 고베신학교 상해영어학교 수학	조선여자고학생상 조회(화요파)	삼천리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출전 : 『동아일보』, 1930. 9.11, 3면 12단, <고원섭여사영면> ; 『조선일보』, 1923. 8.23, 3면 6단, <여자강습원 김현제 여사가> ; 『매일신보』, 1936.12. 4, 6면 10단, <농촌계발주력 최성삼여사> ; 「노동대회의 경신」, 『개벽』 40, 1923.10 ; 「인재순례, 제2편 사회단체」, 『삼천리』 5, 1930. 4 ; 강만길·성대경편,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 김승, 「한말 일제하 밀양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15, 부경사학회, 2004 ; 『왜정시대인물사료』 2.)

위의 【표 3】은 조선여성동우회의 발기인 14명 중 12명의 경력을 정리한 것이다. 발기인 중 오수덕과 홍순경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이들 발기인들은 조선여성동우회 이전부터 박원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우선, 김현제⁵⁹⁾는 박원희와 같은 서울파에 속하였으며, 정종명과는 일본에서 귀국 후 정종명이

59) 『조선일보』, 1923. 8.23, 3면 6단, <여자강습원 김현제 여사가> ; 김현제는 서울파 강택진(姜宅

주도한 여자고학생상조회 주최의 강연을 하였었기에 안면이 있었다. 우봉운은 북간도에서 함께 교육운동에 종사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우봉운·김필애·고원섭·오수덕과는 1923년의 전조선청년당대회와 1924년 4월의 조선청년총동맹에 함께 참여하였었다. 이춘수는 경성여고보 출신(4회)으로 박원희와는 동창이었다.⁶⁰⁾ 한편, 발기인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후 박원희와 행보를 같이했던 김수준(金繡準) 또한 경성여고보 출신(3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⁶¹⁾

이처럼 박원희는 조선여성동우회의 여성들과 교류가 활발하였으며, 이들 여성들은 각각 소속단체와 활동경력이 달랐지만 조선여성동우회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박원희는 사회주의 분파로 보면 소수에 해당하는 서울파로 분류되었기에 여성동우회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는 못하였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여성동우회는 조선여자고학생상조회에 소속된 화요파 혹은 북풍회의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박원희가 집행위원에 선정되었던 것은 당시 사회주의운동선상에서 서울파가 차지하는 역량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활동으로 그녀가 신뢰를 얻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박원희는 조선여성동우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지는 못하였지만 여성해방을 위한 목적에서 조선여성동우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1924년 5월 23일 정철성의 사회로 진행된 조선여성동우회의 발회식에서, “힘없는 여자의 단결”을 촉구하였다.⁶²⁾ 그녀의 뜻 깊은 취지 설명은 많은 관중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조선여성동우회는 ‘신사회의 건설’과 ‘여성해방운동에 입(立)할 일군의 양성과 훈련’, 그리고 ‘여성의 단결’을 표방하였는데 박원희는 이 강령에 동감하고 이의 실현

鎮, 1892-1926)의 아내로, 이들 부부는 1923년 봄 자신 소유의 토지를 소작인에게 나눠주고 서울로 올라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였으며, 1923년 8월에 조선여자강습소를 설립하였다.

60) 이춘수는 정철성과 함께 대구여자청년회를 조직하였으며, 이후 동경 유학과 동경삼월회 활동도 함께 하였다. 경성여고보 본과 4회(1914) 졸업생 명단에 있으며, 경성여고보 사범과 1회(1915) 졸업생이다. [출처 : 조선총독부 관보활용시스템 1914. 4.17, 대정 512호 4면 ; 1915. 4.13, 대정 805호 10면] .

61) 김수준(金繡準, 생몰년 미상) 경성여고보 본과 3회(1913) 졸업, 경성여고보 사범과 1회(1915) 졸업. 1924년 5월 조선여성동우회 결성에 참여하고 간부가 되었으며, 12월 사회주의자동맹 결성에 참여하고 집행위원이 되었다. 1925년 2월 경성여자청년회 결성을 주도하고 3월 서울파의 재경조선해방운동자단체 연합간친회에 경성여자청년회 대표로서 참가했다. 1927년 4월 근우회 창립에 참여하고, 1928년 7월 임시전국대회에서 중앙검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9년 7월 근우회 제2차 전국대회에 참여하고 중앙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하여 경성여자소비조합 이사장으로 활약하였다. 강만길 외,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p. 87 ; 「노동복의 대행진, 계급적 전위의 기를 들고」, 『삼천리』 12, 1931. 2, pp. 46-48.

62) 『조선일보』, 1924. 5.25, 3면 3단, <여성동우회발회식>.

을 위하여 활동하려고 하였다.⁶³⁾ 이는 다음의 기사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여성동우회에서 새해에 하라는 일은 별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저 개인의 의견으로 말씀하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회는 회원수효가 그리 만치 못합니다. 물론 우리처지에 있어서 회원을 많이 모은다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 줄은 압니다만은 그래도 새해에는 힘자라는 데까지 회원을 좀 더 많이 모집하기에 노력코저 하오며 다음으로는 독서회와 연구회 같은 교양기관을 두어 일반 부인에게 교양의 기회를 주고 또 힘만 자라면 기관지발행 순회강연 강연회 등 방법으로 무산여성해방운동의 선전과 진행에 더욱 진력코자 합니다.⁶⁴⁾

즉, 박원회는 조선여성동우회의 활동 방향을 회원모집과 조직 확대, 교양기관의 설립을 통한 부인교양의 확대, 기고·강연을 통한 선전 활동에 두고 있었다.

박원회는 이러한 활동 방식에 따라 조선여성동우회를 대표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조선여성동우회의 선전에 앞장섰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1924년 6월 7일, 노동총동맹과 청년총동맹 주최로 조선교육회 내에서 31개 단체의 대표자 100여인이 모여서 「언론집회압박탄핵회」를 조직하였는데, 박원회는 정철성, 정종명과 함께 조선여성동우회 대표로 참석하였다.⁶⁵⁾ 또, 1924년 7월 5일에는 조선여자교육협회와 시대일보가 후원한 “생활개조는 어디로부터 가정으로? 사회로?”라는 대주제의 「제1회 여자연합현상토론회」에서 사회편으로 활동하였다.⁶⁶⁾

그러나 조선여성동우회에서 박원회의 활동은 1925년 이후 주춤해졌다. 1925년 2월 24일 제1회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음에도 활동상이 드러나지 않는다.⁶⁷⁾ 이는 조선여성동우회 내 여성운동가들의 여성해방에 대한 방식의 차이와 이들

63) 『동아일보』, 1924. 5.22, 2면 1단, <조선여성동우회, 건실하게 앞길을 개척하자> ; 조선여성동우회 강령은 “1. 본회는 사회진화법칙에 의하여 신사회의 건설과 여성해방운동에 입(立)할 일군의 양성과 훈련을 기함. 2. 본회는 조선여성해방운동에 참가할 여성의 단결을 기함”이다.

64) 『조선일보』, 1925. 1. 1, 1면 2단, <여성동우회 독서, 강연 선전과 회원모집 박원회 여사 담>.

65) 지검비 제633호,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대리, 「각 단체 연합상담회에 관한 건」(1924. 6. 9), 『검찰행정사무에 관한 기록』(1).

66) 박원회와 함께 사회편으로 참석한 여성은 김계송(조선불교여자청년회), 현덕신(중앙엠피청년회), 이운경(토산애용부인회)이었으며, 심판은 이상재, 김준창, 노정일, 최남선 이었다. 『시대일보』, 1924. 6.28, 1면 6단, <생활개조를 설파할 연합현상토론회>.

67) 1925년 2월 24일 여성동우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박원회와 함께 신임집행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김필순, 박춘자, 정종명, 허정숙, 주세죽, 김수준(서울파)이었다. 당시 총회에서 민중운동자대회 참가결의를 하였는데, ‘민중운동자대회’는 박원회가 속한 서울파에서 반대하고 있던 행사였다. 또한 당시 이미 화요파는 경성여자청년동맹을 설립(1925년 1월)한 상태였고, 서울파는 자파중심의 경성여

이 관계된 사회주의 운동단체의 대립으로 화요회 계통의 경성여자청년동맹과 서울파의 경성여자청년회가 별도로 설립되어 분열된 데 기인하였다.

박원회는 1925년 2월 21일 화요회계의 경성여자청년동맹에 대항하여 김수준, 김숙정, 문정애와 함께 경성여자청년회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3월 8일의 경성여자청년회 발회식에서 박원회는 경성여자청년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제무산부인테이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하였다.⁶⁸⁾ 또 박원회는 경성여자청년회의 사무실을 서울청년회 건물에서 벗어나 원동(苑洞)의 자신이 운영하는 양복점으로 옮기기도 하였다.⁶⁹⁾

그렇다면, 박원회는 경성여자청년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경성여자청년회 강령이 참고가 된다.

1. 우리는 부인의 독립과 자유를 확보하며 모성보호와 사회상에 재한 남녀지위의 평등인 사회제도의 실현을 기함.
2. 우리는 부인해방에 관한 사회과학상의 교의를 분명케 하며 이를 보급함을 도모함.⁷⁰⁾

위의 강령을 참고하면, 박원회는 ‘부인의 독립과 자유’, ‘모성보호’와 ‘남녀평등’의 실현을 경성여자청년회의 기본적인 여성정책으로 삼고 있었다. 또한 ‘부인해방에 관한 사회과학상의 교의를 분명’히 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사상에 입각한 여성해방사상을 인식시키고, 이를 보급하려고 하였다. 그녀는 먼저 부인해방사상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박원회는 ‘부인해방사상의 보급’을 위하여 언론활동과 강연활동을 병행하였다. 다음의 【표 4】는 박원회가 경성여자청년회를 통해 언론 기고 및 강연 활동을 전개한 내역이다.

자청년회의 창립총회(1925. 2.21)를 개최한 상태였다. 『조선일보』, 1925. 2.26, 3면 8단, <여성동우총회>.

68) 박원회는 현대에 있어서 부인의 지위는 비참한 상태로, 영국과 프랑스에서의 부인참정권 운동의 경과를 설명하고, 러시아에서 무산부인운동이 3월 8일에 일어나 이것이 국제무산부인테이가 되었는데, 본회도 이 기념일에 발회식을 거행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축하할 일이라고 하였다. 경고비 제1183호, 경기도, 「경성여자청년회 창립에 관한 건」(1923. 3.13), 『일제경찰심문조서』, [출처:한국 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69) 『조선일보』, 1925.12.20, 3면 1단, <가정부인-경성에서 활동하는 여자단체(4) 경성여자청년회>.

70) 『동아일보』, 1926. 1. 8, 3면 1단, <우리회의 취지 -京城女子青年 朴元熙 女史>.

【표 4】 박원희의 경성여자청년회 언론 및 강연 활동

구분	기사 및 강연제목	출처	비고
언론	국제무산부인데이(1)	조선 1925. 3. 6.	압수기사
언론	해방된 로시아부인-적어도 그만큼은 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1926. 1. 1.	
언론	우리회의 취지	동아 1926. 1. 8.	
강연	제가(諸家)의 연애관(26. 1.13)	조선 1926. 1.15.	신춘여류강연회
강연	우리의 사명(26. 8.14)	동아 1926. 8.13.	노량진청년회

위의 표에서 『조선일보』에 기고하였다가 압수된 ‘국제무산부인데이(1)’기사는 당시 사회주의 여성단체들이 국제무산부인데이 기념회를 매년의 정기사업으로 정하고 있었던 배경과 관련된다. 박원희는 이 글에서 자본주의사회가 무산계급의 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현실과 국제무산부인데이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기사는 식민지 조선여성들의 이상향으로 새로운 여성정책을 실시하는 레닌정부 통치하의 러시아를 소개하는 글이다. 세 번째 기사는 경성여자청년회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현재 식민지 조선 여성들의 현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성여자청년회의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경성여자청년회가 주최하고 조선일보가 후원한 신춘여류강연회에서 박원희는 당시 조선에서 논쟁 중이었던 연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세기부터 이 문제를 연구한 사람들의 연애관을 소개하였다. 그녀는 연애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출현으로 종교, 철학, 문학, 논리 등 각 방면에 동요가 생기면서 기존의 성적·도덕 관념상에 변화가 생기면서 문제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예로써 입센의 작품들인 『인형의 집』·『유령』·『해의 부인』을 소개하였다. 특히 『인형의 집』 주인공인 노라가 집을 떠나며 남편과 나눈 대화를 통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원희는 이 작품이 기존의 남녀의 결혼관계에 대한 일종의 혁명이었으며, 남녀평등의 주장과 부인해방의 주장이 이를 통해 한층 더 선명해 졌다고 하였다. 박원희가 입센의 작품 속 주인공들을 예로 들면서 연애론을 설명한 것은 진실된 연애는 여성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자유와 평등의식을 심어주는 것임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였다. 박원희는 일반 여성들의 관심이 많은 ‘연애’라는 주제를 통하여 여성들 스스로 ‘인간’임을 자각하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강연은 노량진청년회에서 생활개선의 철저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강연회였다. 강연의 내용은 전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제목으로 유추해 보건대,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박원회는 언론 및 강연활동을 통해 여성해방사상을 전파하여 여성들이 여성문제를 인식하도록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관 내에 서적을 구비하여 회원들이 때때로 모여 부인해방에 대한 서적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경성여자청년회의 조직을 확장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26년 1월, 회원의 수는 50인에 불과하였다. 이는 선각적 여성의 여성운동 참여가 적은 것이 주원인이었다. 아울러 여성해방운동단체의 분열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무엇인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만 하였다.

1926년 3월 2일, 박원회는 경성여자청년회 집행위원회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조선 각지에 조직된 부인단체를 집중할 만한 기관을 조직하는 일을 결의하였다.⁷¹⁾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박원회는 경성 시내에 있는 부인운동자 간담회를 열고 부인운동의 통일과 조직에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⁷²⁾

마침 사회주의진영에서 민족협동전선운동론을 제기하자,⁷³⁾ 박원회는 1926년 11월 14일 경성여자청년회 회관에서 개최된 재경부인운동자간담회에서 조선부인운동자의 통일방침을 협의하여 경성여자청년회와 경성여자청년동맹의 합동을 이루어내었다. 이는 민족협동전선체의 형성 이전에 사회주의계 여성단체의 통합을 이루어 낸 것이었다. 그에 따라 사회주의계 여성단체들은 민족협동전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박원회는 선정된 9명의 준비위원 중 한 사람이었다.⁷⁴⁾

71) 1926년 3월 2일 집행위원회에서는 원명순, 황어순 2명을 집행위원으로 보선하고, 1) 국제무산부인 데이 기념강연을 개최할 것 2) 조선각지에 임의 조직된 부인단체가 불소하나 그 단체가 각각 분리되어 서로 연락이 없음으로 산재한 각 단체를 집중할 만한 기관을 조직하도록 노력할 일을 결의하였다. 『동아일보』, 1926. 3. 3, 2면 3단, <경성여청결의>.

72) 『조선일보』, 1926.11. 9, 3면 3단, <경성여청의 임시총회>.

73) 1926년 7월 8일 조선물산장려회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서울청년회 계통의 권태석 등과 합작하여 민족협동전선으로서의 ‘조선민흥회’를 발기하였으며, 1926년 11월 15일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는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여 사상단체를 통일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와의 적극적 제휴를 주장하였다.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7, pp. 30-32.

74) 참가자는 여성동우회 이현경 외 열 두 사람, 경성여자청년동맹 심은숙 외 열 사람, 주최 측인 경성여자청년회 박원회 외 여덟사람이었으며. 준비위원은 조선여성동우회의 이현경, 황신덕, 강아그니아, 경성여자청년동맹의 조원숙, 심은숙, 김정은, 경성여자청년회의 박원회, 김수준, 신기숙 이었다. 『조선일보』 1926.11.15, 3면 3단, <부인운동자의 간담회>.

이후 박원회는 1926년 11월 21일 원동의 경성여자청년회관에서 준비위원들과 함께 중앙여자청년동맹의 창립을 준비하였다.⁷⁵⁾ 그리고 1926년 12월 5일에는 임시의장으로서 중앙여자청년동맹의 설립을 이끌었다.⁷⁶⁾

중앙여청에 대한 박원회의 생각은 1927년 1월 4일 <조선부인운동소감>이란 글에 잘 나타나 있다.⁷⁷⁾ 박원회는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조선사회운동의 파전(派戰)을 하루라도 빨리 매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운동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산계급의 승리를 위해서는 통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의 부인운동을 파쟁에서 구하고 계급적 승리를 위해서는 급격한 과도기에 방황하지 않으면서 부인운동을 해방의 정로로 지도할 수 있는 통일적 기관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누구보다도 처참한 경우에 처해 삼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가 최후의 승리가 올 때까지 견고하게 결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박원회는 『조선일보』 1927년 1월 6일에 기고한 <우리들의 진로 승리는 단결에 있다>에서 “부인의 진정한 해방은 무산계급해방과 같이 되는 것을 각오” 하여야 하며 “가정 속에서 공장 속에서 신음하는 여동무들은 주저하지 말고 자체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무산계급전선에 가담”하고 “굳게 단결하며 일방으로는 민족적 해방을 위하여 노력하자. 우리의 승리는 단결과 통제 있는 조직에 있다.”고 하였다.

중앙여자청년동맹에서 교양부 소속의 집행위원이었던⁷⁸⁾ 박원회는 집행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방침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7년 6월 27일엔 박원회가 의장 겸 서기를 맡아 연구반, 숙명여고 맹휴사건, 집행위원 보선, 순회 강연 건 등을 토의하였다.⁷⁹⁾ 1927년 6월 29일엔 숙명여고 맹휴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며,⁸⁰⁾ 1927년 10월 16일엔 중앙고보 맹휴사건 조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숙명여고 맹휴사건을 조사하였던 박원회는 『동아일보』 1927년 7월 8일자에 <조선여자교육의 현상과 근본정신>라는 글을 실어 일선동화주의 정책에 따라 현모

75) 11월 20일 경성여자청년동맹에서는 주세죽을 임시석장으로 선정한 후 임시총회를 열고, 두 단체 합동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조선일보』, 1926.11.22, 3면 4단, <경성여청동맹 임시총회>.

76) 『동아일보』, 1926.12. 8, 2면 8단, <중앙여청연맹 두 여성단체가 새로 한 단체로 합동>.

77) 박원회, 「조선부인운동소감」, 『조선사상통신』 217, 조선사상통신사, 1927.

78) 『동아일보』, 1927. 4.27, 3면 5단, <중앙여청 집행위원회>.

79) 경중경고비 제7291호, 종로경찰서장, 「중앙여자청년동맹 집행위원회의 건」 (1927. 6.29),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2).

80) 경중경고비 제7393호, 종로경찰서장, 「중앙여자청년동맹 집행위원회의 건」 (1927. 6.30),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2).

양치주의를 강조하는 식민지조선의 여성교육을 비판하였으며, 이러한 사태는 근본적인 교육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여자청년동맹에서 활동하는 한편, 박원희는 1927년 5월 27일 민족협동전선 여성단체인 근우회의 창립에 참여하고, 그 주역으로 활동하였다.⁸¹⁾ 박원희는 근우회 제1기의 중앙집행위원이면서 교양부원으로 활동하였다.⁸²⁾ 그녀는 근우회 본부의 집행위원회에서 근우회 활동의 방침이나 내용을 선정하는 활동을 하였다.⁸³⁾ 교양부원으로서 편집부와 학생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⁸⁴⁾ 부인의 교양을 향상하기 위해 학술강연을 하였다.⁸⁵⁾ 또한 근우회 선전일에는 선전을 위한 팸플렛 제작과 보급 활동을 하였으며,⁸⁶⁾ 근우회의 지회설치를 위한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표 5】는 박원희가 근우회에서 강연한 내용이다.

【표 5】 박원희의 근우회 강연 활동

날짜	주최	강연제목	출처
1927. 7.14.	교양부 학술강좌	부인문제	조선 1927. 7.15
1927.10.14.	근우회 함흥지회	특수환경에 처한 조선여성의 사명	동아 1927.10.14
1927.11.12	인천인배회	조선청년의 지위와 사명	동아 1927.11.11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27년 7월 14일에 근우회 교양부에서 주최한 제1회 부인학술강습회의 강연에서, 박원희는 ‘부인문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박원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말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제목으로 보아 그녀는 평소 주장하던 부인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927년 10월

81) 박원희는 1927년 4월 16일 개최된 발기인회에서 발기인총회 준비위원 18명에 포함되었고, 4월 26일의 발기인총회에서 40인의 발기인에 선정되었으며, 15명의 창립준비위원이 되었다. 5월 27일 창립총회에서는 집행위원 21명에 포함되었다.

82) 『조선일보』, 1927. 5.29, 3면 1단, <근우회창립완료>; 『조선일보』, 1927. 5.30, 3면 1단, <근우회 발회식>.

83) 박원희의 근우회 집행위원회 참여는 모두 7번으로 확인된다. 참여한 날짜는 1927년 6월 5일, 6월 19일, 7월 21일, 9월 1일, 10월 4일, 10월 14일, 10월 17일이었다. [출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84) 경중경고비 제6347호, 종로경찰서장, 「근우회위원회의 건」(1927. 6. 6),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2).

85) 경중경고비 제6935호, 종로경찰서장, 「근우회 집행위원회의 건」(1927. 6.20),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2).

86) 경중경고비 제8219호, 종로경찰서장, 「근우회 집행위원회의 건」(1927. 7.22),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3).

14일 함흥에서 개최된 근우회 함흥지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박원희는 ‘특수환경에 처한 조선여성의 사명’이란 연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에서 그녀는 “조선은 농산국이고 일본은 공업국이다 조선의 원료를 염가로 일본에서 방매함으로 조선의 경제는 날로 쇠퇴하여 간다. 이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조선적으로 무슨 기관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강연을 하던 중 경찰에 의해 중지당하고 경찰서에 연행되는 고초를 겪었다.⁸⁷⁾ 그리고 1927년 11월 12일 인천 산수정 공회당에서 개최된 강연에서 그녀는 ‘조선청년의 지위와 사명’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 또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으나, 강연제목으로 보아 조선청년들의 현재의 위치와 처지, 그리고 그들의 사명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것이다.

이상으로 박원희가 전개한 여성해방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박원희는 지역단체인 광진부인회 가입을 시작으로, 사회주의 여성단체의 전국적인 지도기관인 조선여성동우회를 조직하고 그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조선여성동우회에서 분열된 경성여자청년회를 새로이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여성노동자뿐만 아니라 구식 가정부인을 포함한 폭넓은 여성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다. 중앙여자청년동맹이나 근우회 활동 또한 그녀의 이러한 생각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의 여성해방운동은 다른 부문운동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함께 추진하였던 민족해방을 위한 활동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제 2 절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참여와 민족해방운동의 전개

식민지시기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여성문제의 해결은 민족해방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여성해방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박원희 역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해방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함께 추진하였다. 그녀는 서울청년회와 서울청년회 내의 비밀공산주의 그룹인 ‘고려공산동맹’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운동계에서 입지를 넓혀갔다. 이 장에서는 박원희의 서울청년회 활동과 이후 신간회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원희는 서울청년회와 ‘고려공산동맹’이 추구하는 운동방향과 지도노선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⁸⁸⁾ 우선, 그녀는 고려

87) 『동아일보』, 1927.10.14, 2면 7단, <강연을 금지하고 연사 박원희씨까지 검속>.

공산동맹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서울파내에서의 위상을 높여갔다. 그녀는 1923년 초 동양학원 강사로 활동하면서 고려공산동맹의 만주지국인 간도총국의 설립에 참여하였었다.⁸⁹⁾ 그러나 간도총국은 ‘동양학원사건’으로 와해된 것 같다. 이에 따라 1924년 10월 고려공산동맹의 조직체계가 재정비되었을 때 다시 가입하였다.⁹⁰⁾ 그녀가 고려공산동맹에 조직원이 되었다는 것은 서울파 활동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박원회는 간도에서 ‘동양학원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서울로 돌아온 후 서울청년회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녀는 1924년 4월 15일 전국적인 노동자 농민을 아우르는 총기관의 건설을 위하여 개최된 ‘전조선노동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것으로 서울청년회 활동을 재개한다. 박원회는 1924년 4월 21일부터 시작된 ‘조선청년총동맹 창립대회’에 광진부인회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3일째인 23일 회의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⁹¹⁾ 중앙집행위원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박원회는 24일의 임시대회에 참여하였다. 대회에서는 각 부문운동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부인운동에 관하여 “부인운동의 축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를 위하여 노력함.”⁹²⁾라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 달 후 사회주의 여성단체의 효시가 된 조선여성동우회 설립의 바탕이 되었다.

이후에도 박원회는 서울청년회에서 여성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계속하였다. 1924년 9월 16일엔 서울청년회에서 주최한 산아제한에 대한 남녀토론회에 김수준과 함께 산아제한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참석하여 토론하였다.⁹³⁾ 1925년 2월 3일에 개최된 서

88) 전명혁에 따르면, 1922년 10월 11일 서울파 공산주의 그룹이 조직되었으며, 조직원은 15명으로, 당시에는 명칭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 이 그룹은 1923년 2월 20일 고려공산동맹을 창립하였는데 19명의 대표가 참가하고 57명의 정회원과 36명의 후보가 있었다고 한다. 전조선청년당대회와 조선청년총동맹의 결성은 고려공산동맹의 조직적 활동의 결과로 보았다. 전명혁, 위의 책, pp. 133-154.

89) 간도총국의 구성원은 김사국, 박원회, 방한민, 김정기, 정백, 한명찬 등이었다. 이현주, 위의 책, p. 230 재인용.

90) 이때 권태석, 최익환, 임혁근, 박태선, 한 해, 최창익 등이 박원회와 함께 가입하였다. 전명혁, 위의 책, p. 259 ; 방인후, 『북한 ‘조선노동당’의 형성과 발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p. 25.

91) 『동아일보』, 1924. 4.25, 2면 6단, <조선청년총동맹의 청년임시대회> ; 안건호·박혜란, 「192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한국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p. 86 ; 조선청년총동맹은 청년당대회 개최 이후 청년운동의 주도권을 확보한 서울청년회가 전체 운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결성한 것으로 조선청년회연합회와 결합하여 그 지방조직을 흡수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에 신흥청년동맹이 참여하여 사회주의 청년운동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었다.

92) 김준엽·김창순 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청계연구소, 1986, p. 145.

93) 『시대일보』, 1924. 9.14, 1면 10단, <연사가 결정됨, 산아제한 토론회>.

울청년회 신춘대강연회에서는 ‘사회진화와 부인의 지위’라는 연제로 강연하였는데, 강연도중 공산주의의 실행을 절규하여 세 차례나 임석한 경관에게 주의를 받았다.⁹⁴⁾

이처럼 서울청년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박원희는 1925년 1월 11일, 서울청년회 제4회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정되어 서울청년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관여하였다.⁹⁵⁾ 우선 그녀는 1927년 2월, 서울청년회와 관련 있던 잡지 『노동운동』의 책임 집필자로 참여하였다.⁹⁶⁾ 또, 박원희는 1927년 11월 잡지 『소년조선』의 집필동인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서울청년회의 집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⁹⁷⁾

서울과가 주도한 민족해방운동전선에서 박원희의 활동은 1927년 5월 16일 개최된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창립대회에서 가장 돋보였다.⁹⁸⁾ 박원희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를 임시기관으로 할 것인지, 상설기관으로 할 것인지를 논쟁에서 상설기관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⁹⁹⁾ 그녀의 주장은 구서울과 사회주의자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논쟁은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가 존재하는데 별도의 무산계급을 위한 ‘당’을 건설한다고 하여 ‘양당론(兩黨論)’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¹⁰⁰⁾ 그럼에도 박원희의 상설기관화 주장은 일반에게 다대한 흥미를 주었다고 한

94) 『동아일보』, 1925. 2. 5, 2면 2단, <중지일관의 강연, 서울청년강연소식>.

95) 박원희와 함께 선출된 집행위원은 한신교, 이정운, 홍순기, 장채극, 임종만, 임봉순, 국기열, 신철호, 박형병, 주병서 외 3명이 더 있었다. 이 때 서울청년회의 강령은 1. 아등은 조선의 해방을 기함. 2. 아등은 무산계급의 이익에 합당한 사회질서의 실현을 기함. 3. 아등은 무산계급에 필요한 지식의 흡수에 노력함. 이었다. 이재화·한홍구 편, 『한민족 해방운동사 자료총서』 2, 경원문화사, 1988, pp. 369-370.

96) 『조선일보』, 1927. 2.14, 2면 4단, <「노동운동」 창간>; 박희도, 이항발, 이순탁, 강우 등이 포함되었다.

97) 『조선일보』, 1925. 1.14, 2면 4단, <서울청년총회 임원을 개선>; 『시대일보』, 1924. 1.14, 5면 2단, <서울청년회의 4회 정기총회>; 『중외일보』, 1927.11. 6, 2면 5단, <소년조선발행>; 편집인인 정홍교는 이 날 박원희와 함께 집행위원이 되었다. 결의사항은 모두 3건으로 1. 사업계획에 관한 건, 2. 청년운동당면에 관한 건, 3. 무산소년문제에 관한 건이다.

98) 정종명은 “지난 중앙협의회 당시에 억세인 남성들을 상대로도 수만어를 토하여 이론전선에서 맹렬히 싸워 조금도 굴하지 아니한 그때의 생각을 하면 그는 조선여성운동 선상에서 혜성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중외일보』, 1928. 1. 7, 2면 4단, <30평생을 운동에 헌신, 여성운동의 큰 손실이다, 정종명여사담>.

99) 박원희 주장의 주요 논지는 동아일보를 통해 확인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선은 특수사정이 있어서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못한다 하지마는 사실에 있어서 무산계급과 자본계급이 분립하는 것은 필연적일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무산계급의 단일정당을 필요로 한다. 그럼으로 우선 무산정당이 되지 못하면 그 준비기관이라도 만들어 민족적 단일정당과 협동 혹은 대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개개인 산병진(散兵戰)을 할 것이 아니라 유력한 정당으로써 행동하여야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동아일보』, 1927. 5.18, 2면 4단, <상설필요가부 무산자정당을 필요로 한다 박원희여사담>.

100) 이 논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김승, 「신간회 위상을 둘러싼 ‘양

다.¹⁰¹⁾ 그러나 대회는 박원회의 바람과 달리, 임시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박원회는 상설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조선일보』에 「제국주의시대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이라는 제목으로 5회에 걸쳐 연재하였다.¹⁰²⁾ 여기에서 박원회의 주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원회의 논지는 세 개의 소주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과 특수’의 변해’와 ‘러시아의 동방정책과 지리적 관계’ 그리고 ‘당과 사상단체’로 되어 있다. 우선 ‘일반과 특수’의 변해’에서 그녀는 조국이 없는 무산자의 운동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운동은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민족운동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한 국제적 의의가 있어서 무산계급운동과 협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와 반식민지의 신흥자본계급과 무산계급이 일치하는 점이 있는 것은 일반적 현실이며,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에서 특수사정을 고찰하는 방법에 대하여, 내적으로 구세력의 대소와 무산계급의 발달 정도 여하에 따라, 외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침략 정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 각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의 특수형세를 고찰하였으며, 무산자의 운동이 가능한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러시아의 동방정책과 지리적 관계’에서는 러시아의 국제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아시아 반식민지 국가들의 민족운동 상황과 그 성공의 여부를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당과 사상단체’에서는 당과 사상단체를 구분하고, 단일당 및 순수당, 이상당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마친 뒤 그녀는 반대편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하였다. 우선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과하는 과업인 한에 있어서만 우리의 객관적 정세상 불가피의 일과정인 한에 있어서만 맑스주의적 이론상 보편타당성이 있는 한에 있어서만 그것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논리에 대하여 어떠한 정세 인지, 맑스주의적 이론상 보편타당성이 있기는 한 건지 되물었으며, “대중집단의 연합체는 조합주의요 비맑스주의적이다”라는 논리¹⁰³⁾에 대하여서는 조선의 대중

당론·‘청산론’ 논쟁 연구, 『역사와 세계』 17, 효원사학회, 1993.

101) 『조선일보』, 1927. 5.18, 2면 1단, <백열화한 理論戰後 임시기관으로 결정>.

102) 『조선일보』, 1920. 5.20-5.25, <제국주의 시대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1-5.

103) 이러한 논리는 창립대회에서 최익한이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재일본무산청년동맹의 최익한 씨가 세계의 정세와 조선의 형편을 보면 발서 사상단체는 그 임무를 다하였다 하

집단은 어느 부문에 속하였든지 간에 ‘씨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씨클에 의하지 않으면 발달할 수 없으며, 씨클을 통일하고 통합하는 일과정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통일하고 결합할 시기라고 하였다. 또, “조선의 농민운동은 계급운동이 아니다”라는 논리에는 제국주의의 금융자본주의와 후진민족 또는 국가의 다대수인 농민의 이해가 배치하기 때문에 다대수의 농민운동이 계급운동이 된다고 하였다. 그녀는 “우리의 진영에 대하여서만 난숙(爛熟)한 자본국가의 일부경향을 경계하던 조합주의를 책에서 본대로 비난하고 순수 이상당을 강요하는 무리는 조선의 무산자로 하여금 미국의 강철대왕을 만들어 준다하는 성의로 보아서 감사하다”고 하며 글을 맺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을 자본주의의 조합주의라며 비난하면서 순수 이상당을 강요하는 반대편의 논리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박원회는 이처럼 민족운동이 계급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것은 국제적인 면에서 필연이며, 조선의 현실에서 민족운동은 계급운동과 연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런 면에서 무산계급을 대표하는 통일된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즉, 조선사회단체협의회를 상설기관화하는 것은 결코 민족협동전선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님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논쟁이 있었지만, 박원회는 결국 신간회에 참여하였다. 신간회 본부에서 박원회는 정기대회의 준비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박원회는 대회준비위원 42명 중 한 사람으로 1927년 11월 5일 공평동에서 열린 제1회 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안작성부 부원에 선임되었다.¹⁰⁴⁾ 그리고 1927년 11월 10일 의안작성부위원회에서 홍기문, 임유동, 정철성과 함께 청년·여성·형평과원으로 선정되었다.¹⁰⁵⁾ 또한 박원회

야 해체를 하는 한편으로 민족적 단일정당을 필요로 하여 운동방향이 전환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서 일년전에 제정한 기본강령과 선언을 가지고 상설기관으로써 중앙협의회를 두는 것은 맑스주의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이론을 말하게 되며 ...“라고 되어있다. 『동아일보』, 1927. 5.18, 2면 1단, <논전, 논전, 긴장리에 발기원안 전부 반복>.

104) 의안작성부의 대표는 송내호로 결정되었다. 의안작성부는 대회에서 제안할 의안의 범위를 정치·경제·노동·농민·청년·여성·형평·교육의 8개의 문제로 정하고, 각 문제에 대한 책임자를 선정할 것을 결정하였고, 책임자 전형위원으로서 안재홍, 권태석, 이관구, 이춘열, 한위건의 5명을 선정하였으며 10일 이내에 의안작성부회를 개최할것을 결의했다. 京鍾警高秘 제12533호, 京城 종로경찰서장, 「신간회본부 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건」(1927.11. 7),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3).

105) 京鍾警高秘 제12885호, 京城 종로경찰서장, 「신간회 본부 대회 준비위원회 의안작성부위원회에 관한 건」(1927.11.11), 위의 문서철 ; 의안작성부 회의는 15일에도 있었는데, 박원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15일 회의에서는 청년·여성·형평과와 관련하여 청년·여성·형평의 각 단체와 직업적 표면운동상황을 조사 보고함과 동시에 형평운동이 부진한 이유를 조사 보고할 일, 노동·농민과 청년·여성·형평의 양 과에 과원 2명씩 중선 하고, 선임은 유보함을 결정하였다. 『조선일보』, 1927.11.18, 2면 9단, <現下諸運動 情勢를 調査>.

는 11월 20일 제3회 의안작성위원회에 참석하여 신간회 선언과 행동강령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¹⁰⁶⁾

한편, 박원회는 신간회 경성지회에도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녀는 1927년 12월 10일과 11일에 열린 신간회 경성지회 제2회 정기대회에서 105표의 지지를 받아 대표회원으로 선출되어¹⁰⁷⁾ 경성지회의 조직 확대 등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박원회는 1928년 1월 5일 병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다.¹⁰⁸⁾ 그녀는 여성해방운동의 꿈을 완수하지 못하고, 어린 딸을 남긴 채 30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동지들에게 “일들 잘 보오.”¹⁰⁹⁾ 라는 유언을 남겼다.¹¹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여성해방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박원회가 여성해방을 위한 일환으로 전개하였던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녀는 서울청년회와 그 내부의 비밀그룹인 ‘고려공산동맹’에 참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하거나 여성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 또, 민족협동노선인 신간회 활동에 참여하여 신간회 본부 대회 준비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으며, 신간회 경성지회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그녀는 사회주의자이자 여성운동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서울파의 활동 노선에 따라 여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녀는 조선청년총동맹의 설립 직후 조선여성동우회의 조직에 참여하였는데, 이것은 여성운동을 사회주의운동의 부문운동으로 인식하여 전국적인 사회주의 여성단체를 조직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그녀는 서울청년회가 주최한 여성강연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을 정도의 강한 어조로 공산주의의 실행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녀는 여성

106) 京鍾警高秘 제13335호, 京城 종로경찰서장, 「신간회본부 대회준비위원회 의안작성위원회에 관한 건」(1927.11.24), 위의 문서철 ; 의안작성위원회는 11월 30일에도 열렸는데, 박원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107) 京鍾警高秘 제13909호의 2, 京城 종로경찰서장, 「신간회 경성지회 제2회 정기대회 속회의 건」(1927.12.12), 위의 문서철 ; 대표회원은 1928년 2월 정기대회에 경성지회를 대표하는 역할이었다.

108) 『동아일보』, 1928. 1. 7, 2면 3단, <悲劇接種하는 故金思國氏 家庭>.

109) 우봉운, 「嗚呼同志 : 命半, 事半의 朴元熙女史」, 『삼천리』 7, 1930. 7, pp. 35-36.

110) 동아일보도 동일한 뜻을 담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참혹한 가정의 형편을 들을 때 뜻 있는 사람 어느 누가 울지 않겠느냐 다만 남은 것은 그들 부부가 눈을 감을 때 “동지들 이여! 최후까지 굴치 말고 맹진하라”는 굳세인 말이라 한다.”라고 되어있다. 『동아일보』, 1928. 1.9, 2면 2단, <비극접종하는 고김사국씨 가정>.

해방 그 자체 보다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여성해방이 실현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여성해방이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을 통해 가능하다는 그녀의 생각은 당시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제 4 장 박원희의 여성해방사상의 내용과 특징

박원희의 여성해방사상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녀가 여성의 현실과 그러한 현실이 있게 된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여성해방의 목표와 방안으로 그녀가 어떤 점을 제시하였는가를 하는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녀가 강조하는 모성보호의 내용을 살펴보자.

제 1 절 여성의 현실과 그 원인에 대한 인식

박원희의 여성해방사상은 조선 여성의 존재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박원희는 조선 여성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¹¹¹⁾

우리는 지금 어떠한 처지에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자는 지금 이사회에서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법률상으로도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기 낳는 유일무이한 기구로만 압니다. 그러나 이 모성을 보호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유산계급부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겠지마는 무산계급 부인들은 해산 전이나 해산 후에 곧 일을 과히 하여 여러 가지 병을 얻습니다. 딸을 난 때는 더욱 학대를 하여 산모가 잘 조성을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찌 인간사회의 도덕이며 인간으로서 당할 일이겠습니까?

위의 글에서 박원희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여성의 현실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법률상 권리가 없고, 모성보호의 시설이 없는 현실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현실은 인간사회의 도덕이 아니며, 인간으로서 당할 일이 아니라고 하여 적어도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은 인간이 아니었음을 지적하였다.

먼저, 그녀는 여성이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을 “현 사회는 부인의 인격존재를 부인합니다.”라고 직시하고 있었다.¹¹²⁾ 그녀는 여성들이 인간으로 대접을 받

111) 『중외일보』, 1926.12.19, 3면 1단, <중외일보 강좌 부인운동이란 무엇인가>.

지 못하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무산계급 부인의 예로써 상론하였다.¹¹³⁾

다수한 무산계급의 부인들은 하루에 열 두 시간 이상 과도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우선 경성 시내에 있는 각 공장에서 노동하는 여공들을 보더라도 어떤 공장을 물론하고 오전 6·7시간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여 오후 7·8시까지 혹은 야업(夜業)까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들의 임금은 극히 적어서 호구의 자료에도 오히려 부족하다.……무산계급 부인들이 무자비한 제도에 눌려서 비참과 굴욕을 강인하고서 과도한 노력을 사회에 제공하는 대상으로 가정노예, 임금노예, 성적노예의 지위에서 학대와 빈곤과 질병으로 천세를 다하지 못하는 것뿐이 아닌가. 더욱이 가련한 것은 이러한 생애를 다시 그 자녀에게 까지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위의 글에서 박원희는 무산계급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가정노예, 임금노예, 성적노예의 상태에 있고, 학대와 빈곤과 질병으로 천세를 다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자녀에게도 세습되는 현실을 “자기의 고기를 담아올 하차를 끌고 도수장으로 가는 소”와 같은 처지라고 하였다.¹¹⁴⁾

박원희는 여성들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교육의 부재와 결여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녀는 “이 부인들은 어릴 적부터 넉넉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나가서 장시간의 과격한 노동에 심신의 발달과 건강을 저해당하며 자기와 가족의 행복은 진연(塵煙)히 자본가의 이익에 희생이 되었던 것이다.”¹¹⁵⁾라고 하여 이들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여 가혹한 노동을 하고 계급적 차별에 노출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녀는 “원래 인간에 교육이 없으면 동물과 하등차이가 없을 것이다. 오직 교육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충분히 닦아서 일개문명인 즉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도 인간이 되려면 반드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면 현하 조선여자는 어떠한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느냐? 대정 13년(1924)의 통계표를 보면 여자 중 백분의 칠이 현대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면 백분의 구십삼은 교육받지 못한 자라고 볼 수 있다.”¹¹⁶⁾라고 하여 교육이 여성을 인간답게 살도록 해

112) 『동아일보』, 1926. 1. 8, 3면 1단, <우리회의 취지>.

113) 『조선일보』, 1925. 3. 6, 1면 5단, <국제 무산부인데이(1)>.

114) 『조선일보』, 1925. 3. 6, 1면 5단, <국제 무산부인데이(1)>.

115) 『조선일보』, 1925. 3. 6, 1면 5단, <국제 무산부인데이(1)>.

116) 『동아일보』, 1927. 7. 8, 3면 6단, <조선여자교육의 현상과 근본정신>.

주는 조건이라고 보았다. 또 그녀는 교육 받는 여성들이 7%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으며, 대다수의 여성들이 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였다.

다음으로 그녀는 식민지 조선여성의 법적인 지위가 없음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그녀는 “부인에게 헌법상 급 민법상의 모든 권리를 빼앗겼습니다.”¹¹⁷⁾라고 단적으로 말하였다. 그녀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부정되고, 민법상 호주권과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조선 여성의 민법상 법적지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¹¹⁸⁾

마지막으로 그녀는 여성들은 가정에서 단지 생산의 도구로 취급되고, 모성보호 시설은 전혀 없었다고 하여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생산의 도구 즉, 생산노예의 처지라고 인식하였다. 특히 무산계급 여성들의 경우, 해산 전후까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으며, 딸을 낳았을 경우, 유교적인 인식과 남존여비의 봉건적 관습에 따라 산모가 학대를 받기도 한다고 보았다.¹¹⁹⁾

박원희는 식민지 조선 여성의 이렇게 된 현실을 인류 역사의 과정을 검토한 후 남성의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찾았다. 그녀는 원시시대에는 여자가 남자보다도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여성은 생산물과 기타의 생활필수품, 그리고 가사에 대하여 완전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체질이나 지식 같은 것도 남성에게 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생산수단의 발달에 따라 남녀 간의 분업이 생기면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녀는 남성들이 생산수단을 장악함에 따라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분만과 육아 등의 가정노동을 하게 되었고, 분업의 발달은 사회적으로 점차 여성들의 활동범위를 축소시켰으며, 생산자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하였다. 이후로 경제 상태는 점점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법

117) 『동아일보』, 1926. 1. 8, 3면 1단, <우리회의 취지>.

118) 일제강점기 여성과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12년 공포된 조선민사령이었다. 이것은 조선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일본제국의 민법을 적용하기로 하되, 능력, 친족, 상속에 관해서는 조선인의 관습에 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동화정책에 따라 일본 민법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시켜나가 1921년에는 조선민사령이 1차 개정되고, 1922년, 1939년에 걸쳐 추가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법에서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었고, 남편이 사망해도 원칙상 재산상속권이 없었다. 결혼한 여성은 중요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남편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만 하였다. 친권행사에 있어서는 1921년 이후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다. 이는 일본민법상의 호주제를 강제 이식하고 조선 전래의 제사상속을 폐지하고 가독상속제를 강제로 들여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가(家)’제도는 조상으로 부터 자손으로 연속하는 추상적이고 초세대적인 가의 존속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메이지 민법상의 호주권은 가족에 대한 지배적인 권능을 대폭 부여한 것이었다.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한국여성사』, 풀빛, 1992, pp. 51-59.

119) 『중외일보』, 1926.12.19, 3면 1단, <중외일보 강좌 부인운동이란 무엇인가>.

를적으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²⁰⁾

아울러 박원희는 남성 중심의 사유재산제도의 발달이 여성이 남성에게 예속된 또 하나의 배경이라고 보았다. 그녀는 사유재산제도는 18세기의 산업혁명으로 자본의 대집적과 노동착취를 초래하였다고 보았다.¹²¹⁾ 또한 전기, 기계의 발명에 따라 생산이 용이해지면서 여성이나 아이가 남자의 노동력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¹²²⁾ 즉, 박원희는 사유재산제도의 발달로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착취가 초래되면서 여성이 노동자로 전락하였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박원희는 여성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을 자본주의제도 그 자체로 보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원희는 제국주의의 지배가 조선 여성이 차별받고, 억압받는 또 다른 원인이라고 보았다. 박원희는 “자본가적 생산방법이 그 발달의 어느 계단에 이르러서부터는 생산력 발달의 조애가 되어 생산력과 생산방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이에 “자본가들은 자본주의의 운명을 구제하려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의 개척에 노력”하여 “자기의 독점적 시장 즉 식민지를 삼고 자기들의 과잉한 상품으로 주민에게 늑매하며 그로부터 저렴한 원료(原料)와 노동력(勞動力)을 약탈(掠奪)”한다고 하였다.¹²³⁾ 즉, 박원희는 자본주의 제도의 발달이 ‘제국주의지배’라는 식민지의 외적 조건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외적 조건이 여성을 민족적인 차별에 처하도록 하였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 당국과 남성들이 ‘현모양처주의’를 강조하는 것을, 박원희는 조선의 여성들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잘못된 사상으로 이해하였다. 그녀는 학교, 교회, 그 외에 현 사회의 문화적 기관이 부인에게 현모양처주의의 사상을 주입하여 자기 자신을 의례히 남자의 부속물처럼 여기게 만든다고 보았다.¹²⁴⁾ 그녀는 교육의 주지가 일선동화의 현모양처주의여서 여자를 도구화(道具化)하고 상품화(商品化)한다고 보았다.¹²⁵⁾ 이처럼 박원희는 일제의 지배정책의 하나인 현모양처주의의 폐단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현모양처주의가 여성의 현실을 미화시킨다고 보았으며, 여성들이 자각하지 못

120) 『동아일보』, 1926. 1. 8, 3면 1단, <우리회의 취지>.

121) 『동아일보』, 1926. 1. 8, 3면 1단, <우리회의 취지>.

122) 박원희, 「미래사회와 부인」, 『노동운동』 1권5호, 노동운동사, 1927. 9, pp. 18-19.

123) 『조선일보』 1927. 1. 6. 3면 1단, <우리들의 진로 승리는 단결에 있다>.

124) 『중외일보』, 1926.12.19, 3면 1단, <중외일보 강좌 부인운동이란 무엇인가>.

125) 『동아일보』, 1927. 7. 8, 3면 6단, <조선여자교육의 현상과 근본정신>.

하게 하는 원인으로 본 것이다.

이상에서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이 처한 현실적인 조건과 그 원인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박원회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이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고, 법률적 권리가 없고, 모성보호가 없는 현실에서 일상적인 억압과 차별에 노출되어 고통 받고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봉건적 사회와 사유재산제도의 발달이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제도의 발달은 제국주의 지배라는 외적조건을 형성시켰고, 일제 당국의 현모양처주의 강요는 여성을 도구화하고 상품화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그녀의 여성해방사상의 뿌리가 유물론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울러 식민지 조선의 여성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계급 문제, 제도와 구조의 문제, 그리고 봉건적 관습의 문제이자 민족문제로 전환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하겠다.

제 2 절 여성해방의 목표 및 방안

박원회는 여성해방사상에 대하여 “부인해방사상은 산업혁명의 결과로 생긴 새로운 경제조직에 따라 필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즉 현대의 부인이 과거생활에 불만을 가지게 되며 새로운 생활방향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생활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결과이다. 거기서 소위 부인해방의 사상이 일어나며 그 기회균등의 요구는 어디까지인지 정하며 또한 그것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¹²⁶⁾ 즉, 그녀는 여성해방의 목표는 과거의 불합리한 상황을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구하는 것인 만큼 그것을 관철시켜야 할 수준이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박원회가 정한 여성해방의 목표와 그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박원회가 좌표로 설정한 여성해방이 이루어진 사회는 그녀가 대표를 맡고 있던 경성여자청년회의 강령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강령은 “부인의 독립과 자유를 굳게 하며, 모성보호와 남녀평등인 사회제도의 실현을 기약함”이었다.¹²⁷⁾ 박원회는 이 강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인도 경제적 자유가 있으며 또한 직업의 자유가 있으며 결혼의 자유가 있으며 교육에 평등이 있으며 특별히 모성보호가 있는 신사회를 건

126) 박원회, 「미래사회와 부인」, 『노동운동』 1권5호, 노동운동사, 1927. 9, p. 20.

127) 『동아일보』, 1926. 1. 8, 3면 1단, <우리회의 취지 - 경성여자청년 박원회 여사>.

설하려는 것이 금일의 부인운동의 대의가 됩니다.”라고 설명하였다.¹²⁸⁾ 이는 앞 절에서 살핀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통하여 설정한 것으로, 박원회가 경성여자청년회를 그의 여성해방사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박원회의 이러한 목표는 ‘부인의 독립’과 ‘자유와 평등’ 그리고 ‘모성보호’로 대표된다. 그런데, 그녀가 여성해방의 목표로 설정한 이러한 항목들은 레닌의 정부에서 실현되고 있는 러시아의 여성정책이었다. 이는 그녀가 설정한 목표가 실현 가능성 있는 현실적인 목표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녀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여성의 독립’과 관련하여 그녀는 “근육노동자면 8시간, 두뇌노동자면 6시간의 노동의무를 마치면 일정한 생활상 보장을 득하며, 어떤 부인이든지 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까닭에 매음제도가 이미 소멸되었으며”¹²⁹⁾라고 하여 러시아에서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이 매음제도에 노출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았다. 박원회는 조선의 여성들도 하루 8시간 혹은 6시간 정도의 일을 하더라도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남성에게 기대지 않는 독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자유’와 관련하여 그녀는 결혼과 가정생활의 자유, 직업과 경제생활의 자유,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비에트 러시아 사회를 소개함으로써 이를 주장하였다. 그녀는 러시아에서는 “이혼이든지 결혼이든지 자유이어서 남녀관계는 애정을 기초로 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¹³⁰⁾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남자에게 아무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¹³¹⁾고 하였다. 또한 러시아에서 여성들은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직업을 선택할 자유까지 인정되어 있다고 하였다.¹³²⁾ 게다가 그녀는 “러시아의 부인들은 참정권을 얻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박원회는 결혼 및 이혼과 가정생활의 자유, 직업선택과 경제생활의 자유, 참정권을 통한 정치적인 자유 등이 보장되는 식으로 여성의 해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그녀는 러시아의 예를 통하여 ‘평등’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박원회는 “이 나라에서는 교육과 도덕의 표준에 남녀의 구별이 없어 남자든지

128) 『중외일보』, 1926.12.19, 3면 1단, <중외일보 강좌 부인운동이란 무엇인가>.

129) 『조선일보』, 1925. 3. 6, 1면 5단, <국제 무산부인데이(1)>.

130) 『조선일보』, 1925. 3. 6, 1면 5단, <국제 무산부인데이(1)>.

131) 『조선일보』, 1926. 1. 1, 15면 1단, <해방된 러시아 부인- 적어도 그만큼은 되어야 할 것이다>.

132) 『조선일보』, 1925. 3. 6, 1면 5단, <국제 무산부인데이(1)>.

여자든지 동일한 경우에 있게 되며, 하등의 불평등, 하등의 불공평도 없게 되었다 한다. 물론 직업도 남녀평등하게 되어 있으나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부인 특유의 귀중한 사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질과 역량에 부적당한 노동을 금지하도록 할 뿐이다.”¹³³⁾라고 하여, 러시아에서는 교육과 도덕, 직업의 평등이 구현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녀는 제도적으로 남자와 비교하여 조금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몇 천년 동안 노예상태에 있었다. 그럼으로 정신상으로 보든지 육체상으로 보든지 남자보다 실력에서 평등 되지 못한다. ‘레닌’동무는 이 사실을 보고 만일 여자를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면 남자와 경쟁하여 가기가 어렵겠다고 하여 공장과 학교에서도 여직공에게는 특별보호에 진력하며 또 여자대표의 회를 설치하고 특별교육을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여자를 일반행정기관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였다고 한다.”¹³⁴⁾라고 하여, 러시아에서는 법률·제도상 여성에게 평등이 구현되고 약자인 여성을 배려하는 실질적인 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박원희는 러시아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조선의 사회가 여성들에게 교육·도덕·법률·제도상의 평등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약자인 여성을 배려하는 실질적인 평등이 구현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박원희가 여성해방의 기준으로 특별히 가치를 두었던 것은 바로 ‘모성보호’이다. 그녀는 러시아의 모성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조선여성에게 대한 모성보호 정책도 이와 같이 실현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녀는 러시아에서는 출산부에게 12~16주간의 유급휴가와 어린이의 우유값과 자양품을 제공하고, 출산시설과 출산비용을 제공하며, 16세 이하 어린이의 국가 양육 등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¹³⁵⁾ 그리고 산모에게 1개월분의 급료를 주고, 포육기의 산모에게는 월급의 1/4 상당의 특별구제금을 제공하며, 임신부에게 진료기회를 부여하고, 노동여성을 위한 탁아시설을 운용하며, 여성의 야간 근로를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¹³⁶⁾ 그럼으로써 박원희는

133) 『조선일보』, 1925. 3. 6, 1면 5단, <국제 무산부인데이(1)>.

134) 『조선일보』, 1926. 1. 1, 15면 1단, <해방된 러시아 부인- 적어도 그만큼은 되어야 할 것이다>.

135) 『조선일보』, 1925. 3. 6, 1면 5단, <국제 무산부인데이(1)> 이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부인 근육노동자라도 산전 산후를 통하여 16주간, 지적 노동자는 12주간의 휴양을 허하고 임부 및 수유부에게는 평소의 급료 외에 우유 기타의 자양품이 지급되며 해산시에는 무료로 국립산원에 들어가서 전문의들에게서 친절한 시술을 받는다. 그리고 아해는 15세까지 국가에서 양육하여 준다.”

136) 『조선일보』, 1926. 1. 1, 15면 1단, <해방된 러시아 부인- 적어도 그만큼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국에서는 그 산모에게 대하여 그의 일개월분 급료에 상당한 구제금을 준다. 2. 산모는 포육기에는 매식 자기 일개월 급료의 사분지일에 상당한 특별구제금을 받는다. 3. 임부상담소에서는 임부를 간호하며 의사는 자조 진단을 하여 만일 병이 있는 때에는 시

조선 여성을 위한 모성보호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그녀가 제시한 모성보호의 목표는 엘렌 케이의 주장과는 달랐다. 엘렌 케이의 ‘모성주의’는 아동중심주의 교육을 주창하고, 여성의 노동을 반대하였으며, 연애를 중시하고, 남녀의 ‘평등’보다는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여성성을 찬미하는, ‘모성보호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¹³⁷⁾ 이에 따라 엘렌 케이의 주장은 여성의 노동을 반대하고 아동의 공육(公育)을 반대하여 여성을 사회가 아닌 가정의 영역으로 한정짓는 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는 중산계급 이상의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한계를 지녔다. 이에 반하여 박원회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아동의 공육에 찬성하였고, 여성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여성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엘렌 케이의 아동의 교육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박원회는 일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일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의 권리에 주목하는 입장이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박원회는 단순히 모성보호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모성보호를 제도로써 보장하는 사회를 구현하기를 꿈꾼 것이었다.

그럼 박원회는 자신이 설정한 여성해방의 목표가 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원회는 “1789년부터 정치상으로 남녀평등일 것을 주창한 혁명단체가 불란서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입센의 저작인 『인형의 가』 라든지 『해의 부인』 이라든지 『유령』 이라든지 또는 엘렌 케이 여사의 『연애론』 이나 영국의 광포파 운동¹³⁸⁾ 같은 운동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모두 국부적 부인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일의 우리는

약소로 보내고 적당한 시기에는 산아원으로 보내게 한다. 4. 탁아소 이것은 모친의 일하는 시간중에 노동자의 자녀를 보호하는 공설기관이니 노동부인들은 안심하고 공장에 나가서 일할수가 있으며 어린이들의 건강에도 조금도 해가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러시아에서는 모친을 보호하며 제이국민을 위하여 극히 주의하고 있다. 또한 부인에게는 밤에 일하는 것을 금하며 건강에 해를 끼칠 노동에 종사함도 허락하지 않는다 한다.

137) 엘렌케이는 우수한 아동을 낳고 교육한다면 국가사회에 대해 정치가 혹은 직업여성으로 성공한 여성보다도 훨씬 값진 일을 한 것이므로 국가가 자녀양육을 위해 사회활동을 포기한 어머니 혹은 어머니가 되려고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엘렌 케이는 여성은 어머니가 됨으로써 한 개인이 아닌 국민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모성은 여성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의 문제이며 그 보호는 국가사회의 진보를 결정한다고 생각했다. 천성림, 「모성의 ‘발견’-엘렌케이와 1920년대의 중국」, 『동양사학연구』 87, 2004, pp. 197-198.

138) 광포파운동(狂暴派運動)은 전투적 참정론자(militant suffragist)라 하여 영국의 여성참정권운동의 하나이다. 1903년 팅커스트 모녀가 ‘여성사회정치연맹(Women’s Social and Political Union:WSPU)’을 결성하였으며, 이 단체는 기존의 실내모임, 서명 청원방식에서 거리시위와 유세, 시민불복종운동 등 급진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 이남희, 「젠더, 몸, 정치적권리 : 영국여성참정권운동가의 이미지 분석」, 『영국연구』 24, 2010.12, p. 182 ; 『동아일보』, 1922. 6.18, 1면 5단, <부인문제의 개관(6)>.

이 모든 국부적 부인운동을 총괄하며 근본문제를 해결할 운동을 하여야 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¹³⁹⁾ 즉, 그녀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해방운동은 서구에서 진행되어 온 모든 국부적 부인운동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문제는 기존의 여성해방운동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에서 박원회가 국부적 부인운동의 예로 든 사항들은 정치적 평등을 요구하는 혁명단체와 입센과 엘렌 케이의 작품들, 그리고 영국의 광포파 운동이다. 여기에서 입센과 엘렌 케이의 작품들이 여성의 해방과 인간으로서의 자각,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때, 이는 여성해방사상의 선전과 여성의 자각을 위한 운동이라고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그녀가 원했던 여성운동의 방법은 여성해방사상의 선전 활동과 여성의 자각을 위한 계몽 활동, 그리고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단체 조직 활동, 그리고 참정권 운동이라고 하겠다. 그녀의 이 같은 생각은 여성해방사상의 선전활동과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에게 정치적 지식을 요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박원회는 자신이 생각한 여성해방의 방안에 따라 여성해방운동을 전개시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박원회가 의도한 여성해방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그녀는 ‘부인해방의 신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부인해방에 관한 사회과학상의 교의를 선명케 하며 또한 이것을 널리 선전하여야 할 것”¹⁴⁰⁾이라고 하여 여성해방사상의 선전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그녀는 여성들이 여성해방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여성해방사상’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여성의 자각’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이에 따라 박원회는 여성해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서 선전활동과 강연 및 언론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선전활동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여 회원을 확보하며, 이들 회원들 간의 독서회와 연구반 같은 활동을 통해 ‘부인해방사상’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한 박원회의 의지는 “회원도 더 많이 늘리고 회관에 적당한 서적을 많이 설비하여 회원들의 연구를 충분히 하고 선배들의 학설을 간단히 등사하여 순회 열람케 하면 전조선적으로 부인해방에 대한 의의를 충분히 알리됩니다.”라고 한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¹⁴¹⁾

139) 『중외일보』, 1926.12.19, 3면 1단, <중외일보 강좌 부인운동이란 무엇인가>.

140) 『조선일보』, 1925.12.20, 3면 1단, <경성에서 활동하는 여자단체(4)경성여자청년회>.

141) 『조선일보』, 1925.12.20, 3면 1단, <경성에서 활동하는 여자단체(4)경성여자청년회>.

특히 박원회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정치적 지식’을 요구하였다.¹⁴²⁾ 그녀는 모든 사회 일에 대하여 여자가 눈을 감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사회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반수(半數)나 되는 여성이 일군으로서 각성하는 날 사회는 금세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사회여성을 보면 한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일군으로의 자격이 불충분합니다. 그 자격 중 가장 필요한 정치적 지식에 있어서는 대개 전혀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라고 하여 정치적 지식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그녀가 ‘정치적 지식’을 강조한 이유는 “소위 선각하였다고 하는 여성들도 대다수는 음악이니 예술이니 또는 문화생활에 심신이 다 취하여 용감한 일군이 되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여성들의 정치적 지식에 대한 관심부족과 사회참여가 부족한 현실 때문이었다. 그녀는 “정치적 지식이 결핍하여서는 여성이 사회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공상이 되고 말 것”이며, “철같이 굳은 의지와 거울같이 맑은 정치적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유력한 일군으로서 이 세상과 싸워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여성들의 정치적 지식 습득과 사회 참여를 촉구하였던 것이다.¹⁴³⁾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자본주의 경제조직을 사회주의 경제조직으로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녀가 사회주의 경제조직으로의 변혁을 주장한 것은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본주의 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비참한 조건에 처하도록 만들었다고 인식한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본주의 제도가 초래한 현실의 모순들, 즉 가족제도의 붕괴라거나 여성을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시킨다거나 혹은 생산이 사회전체의 이익이 아니고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원한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인식은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자본주의의 사회가 봉건적 계급제도를 철폐하고 남녀 간의 형식적인 자유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명목상 자유는 얼마나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가? 참으로 어떤학교든지 어떤직업이든지 귀천에 분별이 없는 만인이 해방이 된 것이라고 하며 실력만 있으면 고관대작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나 가난한사람은 학자도 없고 종일토록 일을 하여야만 그 가난을 면하는 생활을 하는 자가 어떻게 교육과

142) 『동아일보』, 1927. 6. 1, 3면 1단, <정치적 지식이 여자에게 필요>.

143) 『동아일보』, 1927. 6. 1, 3면 1단, <정치적 지식이 여자에게 필요>.

직업의 절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가? 거기서 예컨대 금일의 부인운동이 성공되고 교육상 직업상의 남녀동등권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빈부라는 불공평한 제한이 철폐되지 않으면 대다수의 무산계급의 여자는 오늘날과 같이 무지와 비참고에 빠지고 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부인운동 만으로는 자본주의의 결과로서의 결혼문제 매음문제 노동계급의 비참과 또는 母가되고 妻가되는 여성특유의 곤란을 도저히 해결할 수 가 없다. 요컨대 부인운동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조직을 그대로 두고 그 결과로서의 표현되는 폐해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고로 비유하건대 모래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도저히 영구적 철저적 일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¹⁴⁴⁾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박원희는 자본주의제도가 형식상의 자유를 가져온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상·명목상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무산계급여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금일의 부인운동’의 방법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제시한다. 그녀가 보기에 ‘금일의 부인운동’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할 뿐 영구적이고 철저적 일은 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금일의 부인운동’이란 개량적인 민족주의 여성운동을 의미한다.

그녀는 세계의 무산자가 그 힘을 단결하여 “전 세계의 자본가국의 권위를 타파하고 승리를 득하는 때에 비로소 노동자 계급이 경제적 예측으로부터 해방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해방’은 계급투쟁의 방법에 있으며, “부인의 진정한 해방은 무산계급해방과 같이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⁴⁵⁾ 즉, 여성해방운동은 무산계급해방운동과 조화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원희는 “가정 속에서 공장 속에서 신음하는 여동무들은 주저하지 말고 자체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무산계급전선에 가담”하고, “굳게 단결하며 일방으로는 민족적 해방을 위하여 노력”하자고 주장하였다.¹⁴⁶⁾ 그녀가 주장한 ‘단결’은 식민지 여성 전체의 ‘단결’이자, 무산계급들간의 ‘단결’이며, 식민지 조선인들의 ‘단결’이자 전세계 무산계급들간의 ‘단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박원희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여성해방운동은 기존의 모든 부

144) 박원희, 앞의 논문, 앞의 책, 1권 5호, 1927, pp. 20-21.

145) 『조선일보』, 1927. 1. 6, 3면 1단, <우리들의 진로 승리는 단결에 있다.>

146) 위와 같음

인운동을 총괄하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선 여성해방사상을 선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녀는 많은 여성들이 여성해방사상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기초적인 단계로서 여성들에게 여성해방사상을 인지시키고, 정치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선전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그녀는 여성단체를 조직하고 연구회나 독서회 같은 활동을 벌여 여성해방사상을 심화·확산하고, 강연과 기고 활동을 통해 여성해방사상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성의 해방은 자본주의 제도를 사회주의 제도로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금일의 부인운동’ 즉, 민족주의계 여성운동이어서는 안 되고, 계급투쟁을 통한 무산계급해방운동과 조화시켜, 한쪽으론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면서 실행할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제 5 장 맺 음 말

일제강점기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여성해방운동으로 승화시켰다. 이들은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이 민족적, 성적, 계급적 차별로 인한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았다.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의 이러한 인식은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여성문제를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운동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박원희는 1920년대에 활동한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중 서울계를 대표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양반 가문의 서얼 출신이었던 아버지를 세살 때 여의고 편모슬하의 환경에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하기로 하면 끝까지 해 내고야 말았던 그녀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어머니의 남녀차별의식에 저항하였으며, 결국 어머니를 설득하여 근대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3·1운동 당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에 회의감을 느꼈던 그녀는 교사직을 그만두면서 민족적 각성을 하였다.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오빠의 조선노동공제회 활동을 보면서 민족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하였으며, 남편이 된 김사국과의 만남을 계기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였다. 그녀는 김사국과 결혼 후, 일본으로 건너가 고학을 하면서 노동자의 처지를 인식하고, 여성문제의 해결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여성문제와 관련된 책들을 통하여 여성해방사상을 수용하였다.

일본에서 귀국 후, 박원희는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여성해방사상을 심화시켰다. 그녀는 여고상조회의 강연을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현실을 인식하고 제도와 전통과 관습의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외쳤으며, 남편을 따라 간도 용정에서 동양학원의 영어강사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에게 자립심과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불행히도 동양학원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으나, 그녀는 엘렌 케이의 저작을 번역하면서 모성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여성해방사상의 내면화와 확산에 골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해방에 대한 확고한 사상을 지녔던 그녀는 북간도에서 귀국 후 본격적으로 여성해방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우선 여성단체에 가입하여 이를 통해 여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그녀는 지역 여성단체인 광진부인회에

참여하여 이를 장악하고, 광진부인회를 서울파가 주도한 ‘조선청년총동맹’에 참여시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 그녀는 한국 최초의 여성사회주의 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의 설립에 참여하고 그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경성여자청년회의 대표와 중앙여자청년동맹의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여러 여성단체의 주역으로 강연과 강습, 기고 등을 통하여 여성해방사상을 확산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해방이 민족해방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던 그녀는 민족해방운동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녀는 서울파의 비밀 공산주의그룹인 고려공산동맹에 참여하고, 서울파의 합법적 대중단체인 서울청년회의 집행위원의 일원으로 사회운동에도 참여하였다. 특히 그녀는 민족협동전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의 상설화를 주장하고, 신간회와 근우회에 참여하여 활발히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박원희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이 민족적, 성적, 계급적 차별에 따라 억압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이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고, 법률적 권리가 없으며, 모성보호가 전혀 없는 현실에서 생산의 도구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현실의 원인이 재래의 봉건적 사회와 자본주의제도로 인한 것이며, 사유재산제도의 발달이 이를 심화시켰다고 인식하였다. 그녀의 여성해방사상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모성보호와 남녀의 평등, 부인의 독립과 자유가 보장되고, 실현되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특히 그녀가 모성보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모성보호야 말로 여성들의 보편적인 문제로서 여성의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원희는 자신이 설정한 여성해방의 목표는 기존의 모든 국부적 부인운동을 총괄한 방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여성해방사상의 선진과 확산에 힘썼으며, 여성들이 정치적 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자본주의 제도를 사회주의 제도로 변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그녀가 자본주의제도 하에서는 여성이 구조적으로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고, ‘현모양처주의’처럼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아 개량적인 방법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여성해방운동이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원희는 1926년 남편 김사국을 잃었고,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1928년 1월 5일, 병고를 떨쳐내지 못한 채 4살의 어린 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성 해방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는 동지들에게 그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박원희는 이처럼 길지 않은 생애를 살면서 교육자이자 사회주의자이자 여성운동가 또는 사회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의 박원희의 활동이었다면, 사적인 영역에서 그녀는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의 모습은 얼핏 보면 불행한 모습이었다. 당대 언론에서 그녀의 가정에 대하여 ‘비극’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녀의 삶을 ‘악전고투’, ‘분투’ 등의 표현을 하였던 것은 당대의 사람들도 그녀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매사에 임하였으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그녀에 대하여 ‘실천적인 지식인’이었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 그녀는 자신이 근대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은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여야 할 의무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은 식민지 조선의 독립에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그에 따라 사회주의 사상의 선전과 그 활동을 실천하였다. 또, 그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었던 교사직을 그만둔 것은 민족의식이 고조된 시대에 자신의 가치관과 일제 당국의 교육정책과의 갈등 속에서 양심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하겠다. 아픈 아이를 위하여 병원을 다니느라 동분서주하면서도 여성운동선상에서의 활동을 계속하였던 모습이나 그녀의 동료들이 억압받고 있는 여성의 지위에서 선구자의 목탁을 쳤다는 추모를 하였던 일들은 모두 그녀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양심적인 지식인이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1. 자료

- 고경 제2474호, 조선총독부 경무국, 「적화선인의 불령음모사건 검거에 관한 취조 개요」 (1923. 7. 21),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선인과 과격파』 (4). [출처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이하 역통 문서는 출처 생략] .
- 기밀 제295호, 鈴木要太郎(間島 總領事), 「공산주의 선인의 불령음모 사건 예심 종결에 관한 건」 (1923. 10. 5), 『불령단관계잡건- 조선인의 부-선인과 과격파』 (4).
- 경중경고비 제4619호의 4, 경성 종로경찰서장, 「조선청년총동맹 창립대회의 건」 (1924. 4. 23.) 『검찰행정사무에 관한 기록』 (1).
- 경중경고비 제12299호의 3, 경성종로경찰서장, 「서울청년회 창립 제4주년 기념회에 관한 건」 (1924.10.7), 『검찰행정사무에 관한 기록』 (2).
- 경중경고비 제10201호의 1, 경성종로경찰서장, 「청년단체 조직증가에 관한 건」 (1925. 9.10),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 (1).
- 경중경고비 제5577호, 종로경찰서장, 「조선여성동우회창립총회의 건」 (1924. 5. 10.) 『검찰행정사무에 관한 기록』 (1).
- 지검비 제633호,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대리, 「각 단체 연합상담회에 관한 건」 (1924. 6. 9), 『검찰행정사무에 관한 기록』 (1).
- 경고비 제1183호, 경기도, 「경성여자청년회 창립에 관한 건」 (1923. 3.13), 『일제경찰심문조서』, [출처 :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
- 경중경고비 제12533호, 京城 종로경찰서장, 「신간회본부 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건」 (1927.11. 7),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3).
- 경중경고비 제12885호, 京城 종로경찰서장, 「신간회 본부 대회 준비위원회 의안작성부위원회에 관한 건」 (1927.11.11),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3).
- 경중경고비 제13335호, 京城 종로경찰서장, 「신간회본부 대회준비위원회 의안작성부위원회에 관한 건」 (1927.11.24),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3).
- 경중경고비 제7291호, 종로경찰서장, 「중앙여자청년동맹 집행위원회의 건」 (1927. 6.29),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2).

경중경고비 제7393호, 종로경찰서장, 「중앙여자청년동맹 집행위원회의 건」 (1927. 6.30),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2).
경중경고비 제6347호, 종로경찰서장, 「근우회위원회의 건」 (1927. 6. 6),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2).
경중경고비 제6935호, 종로경찰서장, 「근우회 집행위원회의 건」 (1927. 6.20),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2).
경중경고비 제8219호, 종로경찰서장, 「근우회 집행위원회의 건」 (1927. 7.22),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3).

2. 신문·잡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외일보』, 『시대일보』, 『매일신보』.
『삼천리』, 『별건곤』, 『개벽』.
『보충친목회보』 1910년 6월.
『노동운동』 1권5호, 1927년 9월 [고려대소장].
『조선사상통신』 217, 1927년 1월.

3. 기타자료

『고령박씨세보』 1919, 1937.
『충주박씨세보』 1918.
『인석 김사건 여사 교회기념문집』, 1994.
『왜정시대인물사료』 2.
「학적부 -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제4회 졸업생(1914)-박근희」.
「학적부 -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제2회 졸업생(1916)-박근희」.

4. 단행본

박용옥, 『김마리아-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홍성사, 2003.

한상권, 『차미리사 평전 - 일제 강점기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 푸른역사, 2008.

민족문제연구소, 『女人列傳 - 여성, 세상을 열다』, 아세아문화사, 2006.

이기서, 『교육의 길 신앙의 길, 김필레 그 사랑과 실천』, 태광문화사, 1988.

박용옥, 『한국 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천화숙, 『한국사 인식의 두 관점 : 여성의 역사, 문화의 역사』, 해안, 2009.

전명혁,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 선인, 2006.

이현주, 『한국사회주의 세력의 형성:1919-1923』, 일조각, 2003.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1-5, 청계, 1987.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연구반,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이재화·한홍구 편, 『한민족 해방운동사 자료총서』 2, 경원문화사, 1988.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편, 『친일재산에서 역사를 배우다』, 리북, 2010.

경운회 100주년 기념사업편찬위원회, 『경기여고 100년사』, 경운회, 2009.

김영우, 『한국근대교원교육사』 I, 정민사, 1987.

강만길·성대경편,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오고시 아이코, 전성곤 옮김, 『근대일본의 젠더 이데올로기』, 소명출판, 2009.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한국여성사』, 풀빛, 1992.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울, 2005.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7.

방인후, 『북한 ‘조선노동당’의 형성과 발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5. 연구논문

노동은, 「식민지 근대화와 신여성 :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허무주의의 비가-」, 『역사비평』 17, 역사문제연구소, 1992.

송호숙, 「식민지 근대화와 신여성 : 최초의 여류소설가 김명순-자유연애주의의 비극-」, 『역사비평』 17, 역사문제연구소 1992.

이화형, 「김일엽 -여성담론의 새 장을 펼침」 『뜻은 하늘에 몸은 땅에 -세상에 맞서 살았던 멋진 여성들』, 새문사, 2009.

- 윤정란, 「황애덕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 『崇實史學』 22, 숭실사학회, 2009.
- 이배용, 「김활란, 여성교육·여성 활동에 새 지평을 열다」, 『한국사 시민강좌』 43, 일조각, 2008.
- 이애숙, 「정종명의 삶과 투쟁」, 『한국여성연구소 기타간행물』, 한국여성연구소, 1989.
- 서형실, 「허정숙-근우회에서 독립동맹투쟁으로」, 『역사비평』 19, 역사문제연구소, 1992.
- 강혜경, 「일제하 허정숙의 기자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한국민족운동사 연구회, 2007.
- 권수현, 「허정숙의 여성론 재구성」, 『페미니즘 연구』 10, 한국여성연구소, 2010.
- 박혜란, 「1920년대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조직과 활동」, 이화여대사학과석사논문, 1993.
- 오숙희, 「한국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 1929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사학과 석사논문, 1988.
- 김경일, 「1920-30년대 한국의 신여성과 사회주의」,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 36, 2005.
- 송연옥, 「1920년대 조선여성운동과 그 사상」, 『1930년대의 민족해방운동』, 거름, 1984.
- 이지원, 「1920년대 여성운동의 이념과 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연구』 9, 국사편찬위원회, 1991.
- 이송희, 「1920년대 여성해방론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계』 25, 부산경남사학회, 1994.
- 이송희, 「일제하 여성운동의 전개 -계승과 변화를 중심으로」, 『유관순연구』 5,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5.
- 전상숙, 「‘조선여성동우회’를 통해서 본 식민지 초기 사회주의 여성지식인의 여성해방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0.
- 신용하, 「조선노동공제회의 창립과 노동운동」, 『사회와 역사』 3, 한국사회사학회, 1986.
- 손성희, 「관립한성고등여학교의 설립과정과 교과과정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 석사논문, 2005.
- 현경미, 「식민지 여성교육사레연구-경성여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천성림, 「모성의 ‘발견’-엘렌케이와 1920년대의 중국」, 『동양사학연구』 87, 2004.
- 히로세 레이코, 「일본의 ‘신여성’과 서양여성해방사상 -엘렌 케이 사상의 수용을 둘러싸고」, 『여성과 역사』 5, 한국여성사학회, 2006.
- 김승, 「한말 일제하 밀양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15, 부경역사연구소, 2004.
- 이남희, 「젠더, 몸, 정치적권리 : 영국여성참정권운동가의 이미지 분석」, 『영국연구』 24, 영국사학회, 2010.
- 박철하, 「1920년대 전반기 ‘중립당’과 무산자동맹회에 관한 연구」, 『숭실사학』 13, 숭실사학회, 1999.
- 한생철, 「혁명의 열기로 들끓던 배움터-대성중학교」, 『연변문사자료』 6, 연변정협문서자료위원회, 1988.
- 김승, 「신간회 위상을 둘러싼 ‘양당론’·‘청산론’ 논쟁 연구」, 『역사와 세계』 17, 효원사학회, 1993.



ABSTRACT

Park Won-hee's Women's Liberation Movement and Thought in 1920s

Ahn, Mi Kyoung

Major in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Park Won-hee who acted as a socialist feminist in 1920s under the Japanese rul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emplate women's liberation movement and thought of Park Won-hee. We will come to see the women who made efforts to solve the women's problem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y connecting with the national liberation and class strife and will understand women's liberation of the Seoul group that she belonged to.

Park Won-hee was born in Daejeon, Chungnam in 1898. Her father died when she was three years old and she grew up under widowed-mother's care. She could graduate from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Gyeongseung Girls' High School thanks to the love of her mother and the influence of her brother who played the role of father. She also taught students after graduation, but she felt skepticism about her reality as a teacher with the March 1st Movement as a momentum. She quit teaching in 1920 and came to Seoul. And she paid attention to national problems and social problems by seeing the activities in Joseon Labor Mutual Aid Association of her brother. Meanwhile, she came to meet Kim Sa-guk and accepted socialism. She married him and went to Japan. There she

recognized the position of workers and worried about the solution of the women's problem working as a suit weaver and studying. After reading sociological books, she accepted women's liberation thoughts.

Park Won-hee came back from Japan and gave a lecture with the theme 'the Rebellion of Women' in March 1923 and participated in 'the All-Joseon Youth Congress' held by Seoul Youth Society. However she moved to the north Gando where her husband wanted by the police was living. She inspired students with independence and challenge and spread socialism working as an English teacher of Dongyang School in Yongjeong, the north Gando. Meanwhile, she was involved in 'the Dongyang School Incident' and was imprisoned, but she made efforts to internalize the women's liberation thought by translating the works of Ellen Key and so on. Unfortunately she was pregnant at that time and she suffered the pain of miscarriage. This experience became a momentum for her to pay peculiar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maternity afterwards.

Park Won-hee had her indictment suspended and was released and came back to Seoul. She started the activities for women's liberation in earnest participating in Gwangjin Women's Society. She was a projector and member of executive committee of Joseon Women's Society which was the first socialist women's organization organized in May 1924. She rose as a prominent figure of the socialist women's movement circles acting as the representative of Gyeongseung Women Youth Society and member of central executive committee of Jungang Women Youth League. She made efforts for the propaganda and spread of women's liberation thoughts through lectures and contributions to the press as the leading part of these various women's organizations. In addition, she participated to Geun-u-hoe and Sin-gan-hoe established following the demands of National Cooperation Front and thereby conducted activities for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Moreover she participated in Goryeo Communist League which was a secret socialist group of the Seoul group and also participated in socialist movement as a member of executive committee of Seoul Youth Society.

Park Won-hee's women's liberation thought came from the anger about the

realistic conditions of women in colonial Joseon. She said that the reality was that Joseon's women had no legal rights and were handled as a tool for production but there was no facility for the protection of maternity and that the women of the proletariat were afflicted with severe labor. Furthermore, she thought that the society emphasized the principle of a wise mother and good wife and let fail to recognize the reality that women were made as a tool. She grasped the cause of this status of women to be the traditional feudal society and the system of capitalism. She thought that the ideal society was a society in which the protection of maternity, the gender equality and the independence and freedom of wives are guaranteed and realized.

Park Won-hee thought that women's liberation is impossible in the system of capitalism and is possible only when the system of capitalism is changed into the system of socialism. She acknowledged the freedom of form brought by the system of capitalism, but she thought that the national women's liberation movement under the system of capitalism could not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women because it could not solve the problems of the women of the proletariat. She maintained that the true liberation of women is conducted with the liberation of the proletariat and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should be conducted together for this.

However, Park Won-hee was parted from Kim Sa-guk, her husband, by death in 1926 and died herself due to an illness on January 5th, 1928 and left a young daughter. She did not give up the ideal of women's liberation until the last moment.